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59.35	▲ 코스닥	709.77
	(+8.22)		(+13.72)
▼ 금리 (미국 9년)	3.472	▲ 환율 (원·달러)	1246.20
	(-0.084)		(+1.50)

[입국제한 후폭풍]
중, 규제보복 첫 타기에
경제적 의존도 높은 韓
04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수요둔화 정면돌파 車업계 ‘신차’ 빅뱅

국산차, 내수·수출 동반성장 노력
현대차 ‘코나’ 완전변경 모델 출시
쌍용차 ‘토레스’ 전기차 버전 예고

수입차, 국내 점유율 확대 총력전
벤츠, 대형 SUV 전기차 앞세워

연초부터 자동차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떨어진 점유
율을 높이고 수입차는 늘어나는 점유
율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신차 라인업
확대와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 등 트랜
드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
맞추기에 집중하고 있다. 중형 세단에
서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는 SUV와 친환경차 등 다양한 차량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입지 좁아진 국산차…신차로 내수·
수출 잡는다

국내 완성차 마형인 현대차는 1분기
코나의 완전변경 모델을 출시한다. 코
나EV의 경우 E-GMP 기술력을 담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어 하반기에 부
분변경모델도 출시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7세대로 돌아온 아반떼가 새로
운 디자인이 기대를 모은다. 3분기에
는 쏘나타가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
다. 2018년 이후 약 5년 만에 5세대 모
델이 나온다. 풀체인지 모델인 만큼 디
자일부터 현대차의 SUV헤리티지를

이어갈 새로운 모델로의 등장이 기대
를 모은다. 아이오닉5의 N브랜드 모델
도 기대를 모으는 신차 중 하나다. 현대
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을 달고 등장하
는 첫 전기차인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또
국내 최장수 모델인 ‘쏘나타’는 부분변
경으로 돌아오지만 디자인에서는 완전
변경 모델에 가까운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쏘나타는 국내 출시 후 국민 세
단이라는 명성을 확보했지만 8세대 모
델이 디자인 흑평을 받으며 위기를 맞
았다.

기아에서는 기존에 없던 신차 EV9
을 2분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
V9은 기아에서 출시되는 E-GMP SU
V다. 콘셉트카 시절부터 큰 관심을 모
았던 만큼 등장과 함께 시장에 새로운
기록도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 외에도 레이EV와 쏘렌토 부분
변경 모델도 출시 대기 중이다.

제네시스는 올 하반기 SUV GV80
의 쿠페형 모델 GV80 쿠페를 선보일
예정이다. 쿠페형 SUV는 일반 SUV와
비교하면 지붕 라인이 뒤쪽에서 날렵
하게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SUV임
에도 스포티한 감성을 살릴 수 있다. 또
제네시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
능을 탑재한 ‘G90’을 선보인다.

쌍용차는 올해 하반기 토레스의 전
기차 버전인 U100의 등장도 예고되고
있다. 쌍용차는 2021년 중국 전기차 기



설 앞두고 분주한 가락시장

설 명절을 앞둔 11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
시장에서 관계자들이 선물 및 제수용 과일 및 채소 상차
를 옮기고 있다. /뉴시스

업비야디(BYD)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U100에 탑재할 배터리를 함
께 개발하기로 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을 보유한 BYD와의 협
업을 통해 개발된 모델인 만큼 기존 코
란도 이모션과는 다름을 보여줄 것으
로 기대된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됐던 GMC를 올해 1분기에 출시
하고 브랜드 첫차로 시에라를 등반시
킬 예정이다. 시에나는 픽업트럭으로

5m를 넘는 전장의 초대형 픽업트럭이
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내수와 수출을 건
인할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신
차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이 모델은
창원공장에서 생산되기 위해 준비 중이
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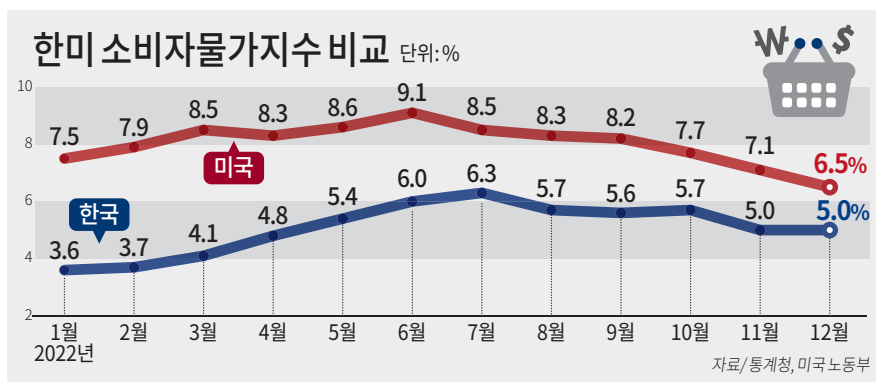
파월, 추가 긴축의지 확인… 韓美 금리 1.5%p 벌어지나

“물가안정 위해 인기없는 결정”
美 연준 이달 말 베이비스텝 전망

“물가안정을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
과 같은 인기 없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품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중
앙은행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해 “물가
안정은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물
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 하
다는 설명이다.

◆美 연준, 이달 말 0.25%p 인상 전망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는 11월 기준 7.1%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전
월보다 0.06%포인트(p) 낮은 6.5%로
예상된다.

임금상승률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상황을 보면
비농업 민간일자리의 시간당 평균임금

은 전년 대비 4.6% 상승한 것으로 집계
됐다. 2021년 5%대에서 지난해 10~11
월 4.8%대로 떨어진 뒤 한차례 더 내려
온 것이다. 물가와 임금이 서로를 자극
하며 연쇄 상승하는 순환이 그치고 있
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
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파월 의장은
“연준의 결정에는 직접적, 정치적 통제
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며 “최대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 통화정책을 활용하
겠다”고 했다. 미국 연준의 목표 소비자
물가지수는 2%대다. 2%에 근접할 때
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
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
C)에서 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예
상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
4.5% 수준이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모더나 CEO, 백신 인상 예고
1회당 110~130달러 책정 고려
화이자 상반기 4배 인상 가능성
국내 수입 부담 커져 대책 시급

모더나측은 “코로나19 백신 가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여전히 논의 중
이지만 모더나는 이 백신이 환자, 의료
시스템 및 사회에 제공하는 가치를 반
영하는 가격 책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자 역시 지난 해 10월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110~130 달러로 올릴 것
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
부가 화이자 1회 분량에 26~30달러를
지불한 것을 감안하면 약 4배가 넘는
인상폭이다. 가격 인상은 이르면 상반
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화이자측은 “정부와 계약한 공급 물
량이 얼마나 빨리 고갈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 1분기까지는 가격 인
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다”고 말했다.

백신 가격 인상은 미국 내에서도 거
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백신 개발 자금으로 17억 달러를 투입
했고, 그동안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 만
큼 가격 인상 조치는 이기적이란 지적
이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le@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키맨’ 김성태 체포… 관심 쏠리는 이
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 민주당 ‘尹정부 10차 전력수급계획 철회
·원점 재검토’ 촉구 /사진 뉴시스

▲ 여야, 정개특위 논의 첫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공감
▲ 전반기 연합연습 쉬지 않고 11일간 진
행… 역대 최장규모 훈련



▲ 윤건영, 이재명 檢출석 지도부 동행
“李 지킨다는 취지… 선택 문제”
▲ 원희룡 한·미 합작 ‘오버에어’ 방문…
UAM 기술협력 사항 논의 /사진 뉴시스

尹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만반의 준비태세 갖춰야”

외교부·국방부 정책방향 보고
“군사훈련, 전쟁대비 실효적 연습
北 인권문제, 단순 인권수호 아닌
‘도발 억제’ 강력한 심리적 요인”
“中 출입국 문제, 국민보호 위한 것
상황따라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언제라도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의 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우리 외교가 경제에 방점을 찍는 기조인 만큼 올해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란 슬로건 아래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정책방향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대는 나라는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에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에 결코 침략전쟁은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가 일치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며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군사 우위라는 것도 명분 없이 유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를 향해서는 “우리 정부가 5월 11일 출범해 여러 다자외교와 양자외교가 많았다”며 “우리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를 한다. 우리 외교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는 외교인 만큼 올해에는 여러 외교행사,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 장관이 전 외교부 해외 공

관을 우리 경제외교, 수출 거점 기지로 만든다고 했는데, 외교부 해외 공간은 외교부 지부라기보다 정부의 지부”라며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 일하기 쉽다.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 내 공관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외교도,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거 받아들이면 보건이 무너지고, 경제통상이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도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이 불편한 상황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징용 문제와 관계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징용 문제는 피해자 측과 계속 협의하고 민관 협의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피해당사자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이 여러 안보 위협, 안보 위기, 경제 공급망 교란,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접경지 주민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발적·국지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단순한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해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국방부 보고 슬로건 자체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게 압도적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고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억대 연봉자도 4%대 ‘특례보증자리론’

금융위, 최대 5억… 30일부터 신청
주택가격 9억 이하, LTV 70% 적용

오는 30일 소득과 관계없이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증자리론’이 출시된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증자리론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특례보증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증자리론, 직격대출 등으로 나뉜 정책상품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가능하다. 주택가격

은 KB시세-한국부동산원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자금용도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용도 ▲기존대출을 상환하려는 용도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보전용도로 구분된다. 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보전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80%까지 가능하다. 단,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5%포인트(p),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최대 60% 내에서만 가능

하며, 규제지역은 10%p 차감한다.

단 LTV와 DTI 규제지역 차감은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000만원) 충족 시 차감이 배제된다.

대출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으로 6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특히 우대형 금리는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p 반영돼 3.75~4.05%까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특례보증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코스피·코스닥·환율 상승마감

코스피가 전 거래일(2351.31)보다 8.22포인트(0.35%) 상승한 2359.53에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증시 한양은행 빌딩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96.05)보다 13.72포인트(1.97%) 오른 709.77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44.7원)보다 1.5원 뚝 1246.2원에 마감했다.

/뉴스

SK하이닉스, 10억弗 규모 SLB 발행

2026년 온실가스 57%감축 목표
투자자 관심에 5억弗서 규모 확대

SK하이닉스가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발행에 성공하며 여전한 반도체 산업 성장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SLB를 10억달러 규모로 발행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SLB는 ESG 경영 목표 달성 여부에 금리 등이 조정되는 채권이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실적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직간접 5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SLB 채권 발행량 목표를 5억달러로 설정했다. 투자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발행 규모를 2배 확대한 것.

글로벌 메모리 업체 중에서 SLB를 발행한 것도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채권 발행에 앞서 ESG 목표에 대한 글로벌 인증기관 검증을 통해 도전적인 수준이고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실적을 ‘지속가능성보고 시스템(SRS)’을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2026년 이후 최종 목표 달성도를 측정해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다운턴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온 데 대해 회사는 무척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올해 반도체 업황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 채권에 담긴 당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에 대해 신뢰를 보내준 결과물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

“韓 추가구입 선제적 논의, 국산백신 활용 고려해야”

>> 1면 ‘코로나 백신값’서 계속

모더나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해 50억달러(약 6조 23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매출로만 184억달러(약 23조원)를 벌어들였다.

미국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이 날 모더나 방셀 CEO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가격 인상 계획을 중

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백신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도 시급할 전망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가격이 인상되면 국내 수입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전량 구매해 무료 접종하는 현재 체계로는 예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7900만명의 백신 구입에 3조 8067억원을 사용했다. 1회분 당 4만 8000원 수준

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데믹으로 백신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백신 가격을 적정 시장 가치에 맞게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 정부도 아직 구입해 놓은 물량이 물론 남아 있겠지만 추가 구입을 위한 논의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산 백신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설 명절 코앞인데”… ‘자금 사정 곤란’ 中企 11%p 늘었다

중기중앙회, 800개 기업 조사
자금 악화 원인 ‘고금리’ 1순위
상여금 평균 40만원으로 감소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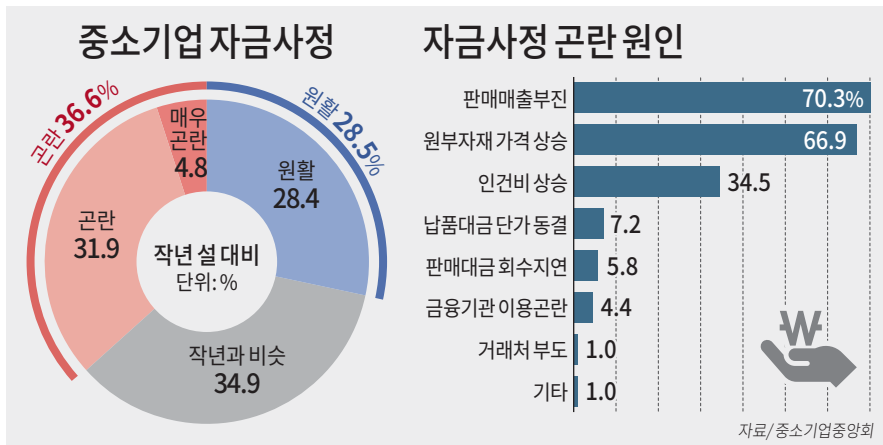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1년
전보다 11% 포인트(p) 가깝게 늘었고,
금융기관 문턱이 높아졌다는 기업은 많
아졌다.

국내의 경기침체로 매출은 여의치 않
고 고금리 행진이 이어지며 이자비용은
한없이 불어나는 등 경영 여건이 녹록
치 않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설 상여금 수준도 지난해보
다 줄어들어 임직원들 보너스 봉투는
얇아질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
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
일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
요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설 자금사정이 ‘곤란’ (곤란+매우 곤
란)하다는 응답은 36.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조사 당시의 ‘곤란’ 답변



(26%)보다 1년새 무려 10.6%p 높아진
수치다.

올해 자금사정이 ‘원활’ (원활+매우
원활)하다는 응답은 28.5%였다. 이 역
시 작년 이맘때 답변(20.4%)보다 다소
늘어났다.

크게 다르지 않아 ‘보통’이라고 한 답
변이 지난해 53.6%에서 올해 34.9%로
줄어든 것을 보면 올해엔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양극화가 더
욱 심화된 모습이다.

자금사정이 나빠진 원인(복수응답)
으로는 ‘판매·매출 부진’ (70.3%)과 ‘원
·부자재 가격 상승’ (66.9%)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을 묻
는 질문에는 25.6%가 ‘곤란’ (매우 곤란
포함)하다고 답했다. 이 역시 전년의
16.3%보다 늘었다. 아울러 ‘원활’ (매우
원활 포함)하다는 응답도 38.8%로 1년
전의 23.8%보다 증가했다. 중소기업들
의 은행 이용 역시 신용도 등에 따라 양
극화가 심한 것이다.

금융권 자금조달시 가장 큰 애로사항
(복수응답)으로는 ‘높은 대출 금리’
(66.9%)를 꼽았다. 이는 지난해
(33.5%)보다 두배가 많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
로 중소기업 가중평균금리는 5.49%로,
10개월 전인 2021년 12월의 3.37%보다

2.12%p나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출잔액도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2월 당시의 936조원에
서 지난해 10월엔 1392조원으로 이 기
간 무려 456억원 늘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
해 풀 유동성과 이후 고물가를 잡기위
해 단행한 연속적이고 급격한 금리 인
상으로 중소기업들의 원금·이자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모습
이다.

중소기업들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올
해 설 상여금도 1인당 평균 40만원으로
전년도의 44만7000원보다 적게 지급하
겠다고 답했다. 44.3%는 ‘지급예정’,
‘아직 미정’은 17%였다.

설에 필요한 자금으로는 기업당 평균
2억555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258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은 “올해 중소기업은 금융이용 관련 지
원 요청사항으로 ‘금리인하’를 가장 많
이 꼽았다”면서 “중소기업 설 자금사정
에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다소 감소
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
고,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자금조달 애로요

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자금조달비용 부
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중소기업들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
해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저리 고정금리 상품 공급
(6조원) 등 고금리 대응 뿐만 아니라 미
래혁신산업·ESG 관련 설비투자 지원
등(16조5000억원) 신산업 육성, 소규모
취약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4조
8000억원) 등 취약기업 재기지원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내놓은
관련 논평에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
한다”면서 “특히, 납품단가연동제의 자
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기업에 금
리 인하와 특례대출 공급 통해 중기부
를 비롯한 정부의 제도 활성화 의지를
보여줘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더욱 크
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증료율 인하 ▲고정금리
안심전환 ▲저금리 대출 공급은 중소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
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세계 성장률 1.7% 전망… 경기침체 가능성 ↑ “美 금리 5% 이상”… 한은도 인상 불가피

〈연준 간부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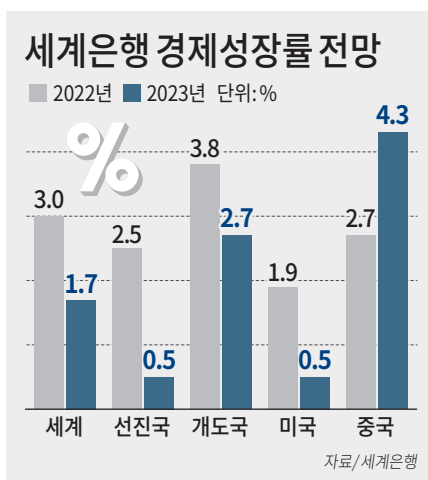
세계은행, 2023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2009·2020 제외 30년간 최저 성장률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
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
량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높은
금리가 선진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계은행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발
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7%에 그칠것으로 전망했
다. 이는 지난해 6월 전망한 3.0%보다
1.3%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경기 침
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20년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낮은 성장 둔화는 세계 경기침
체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악영
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선진국이 고물
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지속하면서
빈곤국의 자본유출 등 금융환경이 악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의 95%, 신
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거의 70%에

대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췄다.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2.5%에서
올해 0.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1.
9%p 낮은 0.5%로 하향했다. 유로존의
경우에도 1.9%p 하향하면서 성장이 정
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2.7%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4.3% 성장률로 회복할 것으로 예
상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외부 수요
악화를 반영해 작년 6월보다는 기대치
를 0.9%p 낮췄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 경제와 개도국의
성장률은 작년 3.8%에서 올해 2.7%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외부 수요가 훨씬
줄어든 상황에서 고물가와 통화 가치
절하, 자금 조달 환경 악화, 기타 각국
내부의 악조건이 상황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일자리·민생안정에 상반기 예산 340조 투입

기재부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일자리 사업 15조의 70% 집행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민생 안정과
일자리 주요 사업 등에 340조원을 투입
한다. 고용률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
반기에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
달 중 59만명 가량 조기 채용할 계획이
다.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
정 사업은 1분기에 4조원을 집행할 예
정이다. 오는 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
공인 대상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이

시작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대
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
회의’를 열어 민생사업, 일자리, 사회간
접자본(SOC) 등 중점분야의 집행 계획
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중 재정
과 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

정에서 총 303조원을 집행한다. 중앙재
정 156조원(65%), 지방재정 131조원
(60.5%), 지방교육재정 16조원
(65%) 등이다.

정부는 민생안정, 일자리 등 주요 사
업을 선별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은 총 14조9000억원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직접 일자
리 사업은 상반기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달 중 59만명 이상 조기 채용
한다.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은 1분기 안에 4조원(35.6%) 집행
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1면 ‘파월, 추가 긴축 의지’서 계속

기대인플레이션율 3.8% ‘높은 수준’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
미스트는 “FOMC 의사록에서 금리인
상 속도가 경제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여긴 의
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비춰 봤을
때, 금리인상 속도조절을 위해 0.25%p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시카고상
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2월에 이
어 3월까지 0.25%p 인상할 것이란 전
망이 지배적이다.

연준의 간부들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
준이 금리를 5%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고 라파엘 보스틱 애플
랜타 연은 총재는 “연준이 오랫동안 5%
이상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 환율 급락에 운신폭 커졌지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연 3.25%) 인
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대 고물가
가 이어지고, 미국과의 금리격차는 1.
25%p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오는 13
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하
지 않고, 미국 연준만 0.25%p 금리인상
을 할 경우 미국과의 금리격차는 1.5%
p까지 벌어지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71로 전년 대비 5.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로 확
대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2월 기준
3.8%로 높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
들의 전망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

면 근로자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
하고, 기업은 비용 인상분을 제품 가격
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이른바
‘임금발(發) 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계
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인플레이션(지
속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다

한미 금리차도 1.25%p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한미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
에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또한 외국인 자금 이탈로 원화 가치가
하락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무역수지 적자와 수입물가 상승을 피하
기 어렵다.

다만 이 같은 금리차에도 원·달러 환
율이 급락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
은 전 거래일 대비 3.2원 내린 1241.5원
에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물가가 잡히
지 않았고, 원·달러 환율이 완전한 안정
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
문에 이번엔 0.25%p 올릴 것으로 전망
한다.

하지만 올해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
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다음달부터는
금리인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
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둔화했을
뿐 아직까진 나이지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간 금리차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
다”며 “국내금융시장이 어려워 금리인
상이 어려워지면 그 자체로 경제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中, 나라별 대응강도 달라… 경제적 의존 높은 韓 첫 타깃”

● 차이나 뉴스&리포트

미국·캐나다·호주·독일 등
중국발 입국제한 국가 많지만
“양자관계 상호조치 고려 할 것
타 국가 보복강도 韓보다 약할 것”

중국이 중국발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의 첫 타자로 한국을 택했다.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도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등 많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가장 공략하기 쉬운 상대였던 분석이 나왔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스인홍 베이징 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쉬운 타깃이 되었을 것”이라며 “중국은 관용에 있어 나라마다 대응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 등이



중국의 한국 국민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중단 이튿날인 11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시민들이 비자 신청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대만을 방문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은 양자 관계의 맥락에서 상호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다른 서방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에 나서더라도 한국에 대한 것보다는 강도가 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전일 한국 국민에 대해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친강 신임 외교부장이 한국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중국발 입국 제한에 우려를 표시한 다음날 바로 나왔다. 주일중국대사관 역시 일본 국민

에 대한 일부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발 승객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외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인도 등도 코로나19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민 대상의 비자 발급 제한과 관련해 기타 국가를 대상으로도 동등한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언급했다.

왕 대변인은 “관련 국가들이 사실적 관점에서 과학적이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호소한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국가 간의 정상적인 인적교류와 교류협력에도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싱가포르 국립대 알프레두 리관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중국이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실제 중국이 이런(보복 조치)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라며 “이는 국가로서 체면의 문제고, 중국 당국은 매우 강한 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복 강도는 한국과 다를 수 있다.

청두 쓰촨대 광둥영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현재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대응할 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저울질 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국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으면 2023년도 중국이 목표한 경제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은 수십 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왕 대변인은 “많은 도시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나 개선되면서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항공업계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리오프닝 더더 아쉬워”

中 보복성 비자발급 중단에
방역당국 “국민 건강이 최우선”

항공사, 中 노선 복항률 10% 이하
코로나19 완화 이후까지 악영향 우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하자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항공업계의 리오프닝 속도가 더뎠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해당 소식에 항공업계의 분위기가 우울하지는 않다. 아직 중국 노선 정상화가 이뤄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당장은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중국의 한국 국민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중단 이튿날인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여행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전날 여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여행사는 준비했던 중국 여행 상품들을 출시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뉴시스

시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발급이 중단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 목적엔 ▲상업무역 ▲관광 ▲의료 ▲개인 사정 등이 포함된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

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한국의 중국인 입국 조치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이에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가 운영하는 중국 노선의 복항률이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항공업계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할 전망이다.

LCC 관계자는 “인천 일원화 조치 때문에 다른 지역의 항공사들이 아예 운항을 못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지역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들도 일주일에 1~2편 정도밖에 운항하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항공업계는 중국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 속도가 느려질 것 같아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이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변질 수도 있어 코로나19가 완화한 후에도 항공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했다.

대한항공은 상하이, 광저우, 다롄, 선양 증편을 취소하고, 새해부터 재개하려 했던 선전·샤먼 노선을 취소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중국 노선을 추가를 보류하고 중국 9개 노선에서 주 10회 운항 횟수를 유지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단기비자 발급 중단 보다 이 일이 커져서 비즈니스 비자 발급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라며 “중국발 국내입국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중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수입차, 전기·하이브리드 등 SUV로 맞불

》1면 ‘수요둔화 정면돌파’서 계속

◆수입차 ‘300만대 시대’…점유율 확대 드라이브

올해 수입차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수입차 300만대 시대’를 연 수입차 업체들은 신차 출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승세를 이어간다. 지난해 국내 시장 판매 1위를 달성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안은 첫 대형 SUV 전기차 ‘더 뉴 EQS SUV’를 앞세워 기선 제압에 나선다. 107.8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주행가능거리를 늘렸다. 배터리 1회 완충 시 유럽(WLTP) 기준 660km까지 달릴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BMW는 대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뉴 XM’과 준중형 순수 전기차 SUV ‘iX1’로 맞불을 놓는다. 뉴 XM은 M 트윈파워 터보 기술을 적용한 V8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조합된 PHEV 파워트레이ンを 장착, 최고출력 653마력, 최대토크 81.6kg·m을 발휘한다. 25.7kWh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 WLTP 기준 최대 88km까지 전기만으로 주행 가능하다. iX1은 BMW가 프리미엄 컴팩트카에서 처음 선보인 순수 전기차다.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413km, 64.7kWh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첫 번째 SUV 모델인 ‘폴스타 3’를 출시한다. 폴스타3는 폴스타 브랜드

의 두 번째 전기차이며 첫 번째 SUV 모델이다. 폴스타3는 압도적인 첨단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내 출시 수입차 중 최초로 고정밀 지도(HD맵)를 탑재한다. 글로벌 시장에선 ‘구글’과 협업했지만, 국내에선 ‘티맵’의 HD맵을 적용한다.

폭스바겐은 티구안과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앞세워 올해 국내 SUV 시장 공략에 집중한다. 티구안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수입 SUV이다.

지프는 순수 전기 SUV 어벤저를 내놓는다. 어벤저는 컴패스를 닮은 디자인의 소형 전기차로, 지프의 제로 이미션 SUV 전략에 따라 개발됐다. 1회 충전시 주행가능거리는 300km이며 편의품목은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현대차 디올 뉴 코나

오토를 지원하는 10.1인치 인포테인먼트 등을 마련했다. 포드코리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럭셔리 중형 SUV인 올 뉴 링컨 노틸러스를 출시한다. 이외에도 픽업트럭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 등도 올 초 출시할 계획이다.

포드코리아는 지난해 포드 브롱코와 포드 익스페디션, 링컨 노틸러스, 네비게이터 등을 출시하며 SUV 라인업을 강화했다.

2019년 노재팬 운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일본 완성차 브랜드들도 올해 다양한 신차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국토요타의 렉서스는 올해 2종의 신차를 국내 출시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중형 순수 전기차 SUV인 RZ다. 렉서스 최초 전용 BEV로 100% 전동화를 실현한 제품이다. 대형 하이브리드 SUV인 완전전경 RX도 들어온다.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확대하고 최신 편의 및 안전 품목을 대폭 늘려 기함급 SUV에 맞는 구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SUV인 CR-V를 올 상반기 중으로 한국시장에 출시한다. 중형 세단인 현대 아코르도 디자인을 완전히 바꾼, 완전 변경 모델로 들어온다. 최근 1~2년간 한국시장에서 신차 출시에 신중을 기해온 현대가 ‘현대 아코르드’의 명성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 필요…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을”

김진표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헌 선거제도 사표 다수 발생
비례성 강화, 협치 구도 필요
개헌특위 산하 공론화위 구성
혼연일체 마음으로 위기 극복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고물가·고금리,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1%대 저성장이에 고돼 있다. 수출도, 고용도, 금리도 모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올 한해, 얼마나 많은 기업,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을지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친 경험이 있는 김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를 겪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번 어려움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시중에 풀 돈이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중 패권경쟁으

로 공급망 위기가 시작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와 식량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다. 위기의 격랑을 헤쳐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경제통상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세계 경제의 일대 격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에 대한 공급망 조정이 속도가 붙고 있다며 “우

리도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고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나라다. 우리와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과 비교할 때 지정학적 경쟁우위도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면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16강의 결실을 거뒀다.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돼야 한다. 그래야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연일체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하자.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목표, 지상과제로 삼자”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꺾듯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

과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고자 여야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현행 선거제도(단순다수 대표제)가 승자독식 정치구조와 거대 양당제를 고착화해서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여러 문제가 많다.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적 요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간 정치 세력이 협치가 가능한 구도로 가야하는 것은 많은 의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통합형이어야 한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창설과 함께 산하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개정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속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여론은 내각책임제에 대한 찬성이 낮다. 대통령제 4년 중임제 하도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지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나경원 “자리 연연 안해… 당 대표 출마 고심” “대기업, 전략성장 산업 맞춤형 지원 원해”

“무엇보다尹 정부 성공이 중요
여론조사 선두, 지지자에게 감사”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8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11일 “아직, 출마·불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표가 수리됐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못 받았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청 신년인사회에 참석



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혔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 성공 등을 놓고(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무슨 선택이 맞는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민의힘 미

래에 무엇이 좋을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 위 부위원장직 사표 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어떤 자리에도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적합도와 관련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데 대해 “지지해주시는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짧게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김건희 여사, 대구서 봉사활동 하고 시장서 상인 격려

설 앞두고 어르신 급식봉사
서문시장 찾아 성수품 구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 급식 봉사와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11일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새마을운동중앙회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급식 봉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김 여사는 인근 지역 거주 어르신 120여명에 식사를 챙기면서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목도리, 덧신 등 방한용품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서 김 여사는 대구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격려하며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아울러 설 명절 준비를 위한 여러 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떡볶이를 시식한 뒤 상인과 재방문을 약속하고 있다. /뉴시스

품과 식자재들을 구매하고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도 했다.

김 여사는 서문시장 양말가게에 들러 300컬레를 직접 구매하고 이날 오전 배식 봉사활동을 한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양말가게는 IMF 사업 실패를 겪고 18년간 서문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7월 점포를 열어 재기에 성공한 곳으로 전해졌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더불어민주당 대책위 경제세미나
“반도체 등 분야에 세액공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에서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를 열고 이미 예정된 복합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부동산 위기

대책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이날 오전 강연에 나서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22년 중반기 이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지표를 언급하며 “15대 주요 품목의 지난해 수출실적을 보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가 잘 되고 강세를 보였던 디스플레이가 어렵다. LG디스플레이에서 텔레비전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용 OLDE를 만들지만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거의 다 따라왔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반도체다. 디램(DDR4 8기가바이트 기준) 가격은 5년간 고점 대비 90%가 하락했고 삼성전자의 2022년 수익 예상치는 약 44조원에서 2023년 약 17조원으로 예측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미분양 주택 관련 통계를 제시하면서 가장 늦게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경기 서부권 등의 도시들의 주택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도 선택과 집중 원한다

홍 의원은 지난 예산안 부수 법령 처리 과정에서 일었던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이 원하는 것은 전략

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은 필요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송년간담회에서) 전략산업 맞춤형 법인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2차전지, 수소, 인공지능, 로봇 등 분야에다가 세액공제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깎아줘도 투자나 고용 등 경제회복의 효과가 일지 않는 분야도 분명히 있다. 맞춤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책임은 한은에

농협경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당의 대응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송 전 부원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가계부채의 주범은 한국은행이다. 최고의 민생 대책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선 지금의 금리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은 9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현상을 막았다. 반면, 대한민국은 해당 시기에 3번 올리고 2번 내렸다. 이 구간에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8월부터 올려 사달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부원장은 민생재정 추경안을 제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코로나 부채대책 ▲지역화폐 예산증액 및 법제화 ▲6개월 물가상승분에 대한 전국민 물자지원금 ▲공공주택 매입 후 임대전환을 주요 대응책으로 소개했다.

/박태홍 기자

상품 강화, 비대면 채널 혁신... ‘인생 금융파트너’ 자리매김

2023 보험사 경영전략

② 삼성생명

보험상품 유통·영업채널 확장
종신·건강·연금상품 혜택 강화
상품 질 개선해 보험시장 선도

보험금 예상하기·보험금 찾기 등
디지털 전환 따른 편의성 제고

삼성생명은 올해 보험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몰두할 예정이다. 전영목 삼성생명 사장은 올해를 ‘2030 비전 달성을 향한 성장의 원년’으로 삼았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변동과 경기침체 속에서 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았다면 올해는 보험상품 품질 향상을 중점 과제로 잡았다. 전 사장의 연임이 확정된 만큼 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전 사장은 “무한개입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보험을 넘어, 고객의 미래를 지키는 인생 금융파트너’가 되겠다는 우리의 대의명분을 가슴에 품고 한계를 넓혀가는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상품·자산운용 경쟁력 키워야

삼성생명은 보험상품의 유통·영업채



전영목 삼성생명 사장.

/삼성생명

널 확장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종신 상품 ▲건강상품 ▲연금상품 등의 혜택을 한 단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수록 보험 상품에 관한 관심도와 가입률이 높아진다. 금융업계는 올해도 어려운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품의 질을 개선해 시장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암보험’, ‘연금보험’, ‘치아보험’ 시장을 공략하며 수익을 올렸다.

최근 출시한 건강자산비갱신암보험의 경우 삼성생명에서 16년 만에 출시한 비갱신 암보험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6개월간 취득해 올해 상반기까지 독주를 이어간다. 비갱신형 보험은 갱신형 보험보다 가입 초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러나 만기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하이브리드 연금보험’ 상품은 출시 3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5년 이내 4.8%의 확정이율을 적용해 당시 보험업계에서 출시된 연금보험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었다. 당초 9000억원을 목표로 출시한 상품이 3일만에 판매 종료돼 업계에서는 1조원 이상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몸집 불리기를 통한 영업력 키우기도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다올프리에셋을 뚫었다. 자회사형 법인 보험대리점(GA)을 확보해 판매 채널을 확장한 것이다. 지사 형태가 아닌 단독GA를 영입한 것은 삼성생명이 처음이다.

다올프리에셋은 ‘다올지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외에도 라이나금융서비

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사 8곳이 삼성생명에 합류했다. 직영조직과 타사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이원화 시스템에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더해 수익성 제고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전 사장은 “종신 상품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건강상품은 생존보업계톱(TOP)수준으로 한계를 확장해야 한다”며 “운용 자회사뿐만 아니라 금융 관계사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활용·새벽거리 분수령

올해 보험업 강화 기조를 내비친 만큼 디지털 전환을 통한 편의성 제고도 주목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라이프시맨틱스, 굿닥 등과의 협약을 통해 온라인 채널 확장에 힘을 쏟았다. 지난해 구축한 플랫폼 활용 여부에 따라 올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이라 해석이다.

삼성생명의 보험찾기 서비스는 보험금 조회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보험금 예상하기’와 ‘숨은 보험금 찾기’ 혜택을 담았다. 질병과 치료 이력을 이용해 보험금 예상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

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예비 가입자가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문턱을 확 낮춘 것이다.

온라인 채널 확장이 성과를 거둘지도 주목된다. 특히 전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삼성 금융계열사의 ‘모니모’의 활용을 꼭 집어 언급했다. 비대면 채널 활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관측이 등장하는 이유다.

전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모니모 서비스를 기술과 데이터 기반으로 더욱 차별화하고 헬스케어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건강 플랫폼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삼성생명 보험찾기 서비스 이미지. /삼성생명

저축은행도 ‘고금리 파킹통장’ 경쟁 가세

시중은행·인터넷은행 견제
OK저축 5%대 파킹통장 등
3~5%대 상품 잇따라 선보

저축은행이 정기예금 상품에 이어 파킹통장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수신 금리를 올리자 저축은행 또한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연 5%대 파킹통장을 출시하고 있다. 통상 2~3%선의 금리를 제공하던 파킹통장의 이자가 훌쩍 올랐다. 파킹통장이란 정기예금과 다르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이다. 돈을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차주의 경우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

지난달 말 OK저축은행은 ‘OK웃백 만통장Ⅱ’를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4.5%다. 그러나 오픈뱅킹 등록 시 0.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추가한다. 단 하루만 맡겨도 최고 연 5%까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대 500만원까지 연 5%의 금리를 제공한다.

지난 5일에는 애류은행저축은행이 ‘더

니모오기’ 통장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2%지만 우대금리를 최고 연 3.0%p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계좌 개설은 다섯 개까지 가능하다. 최대 1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이어 웰컴저축은행과 다올저축은행의 ‘웰컴 직장인 사랑 보통예금’, ‘Fi저축예금’ 또한 연 3.8%의 금리를 제공한다. 한 계좌에 맡길 수 있는 금액은 정기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러 계좌를 만들어 자산을 보관하면 ‘고금리’와 ‘유동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면 정기예금보다는 고금리 파킹통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축은행 업계가 금리 인상 행보에 나선 이유는 인터넷은행이 수신 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가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의 기본 금리는 연 3.0%로 지난달 0.3%p올랐다. 토스뱅크의 ‘토스뱅크 통장’은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연 4%를 적용한다. 기본 금리는 연

2.3%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고금리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며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과의 경쟁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보통예금의 고금리 기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달 은행채 발행이 정상화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은행채 발행에 나서기 시작하면 예금을 통한 자금 수신에는 힘을 뺄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자금조달 창구가 늘어나면 예금 금리를 하향 조정해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또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것.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2월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현재 자본시장에 상당한 자금이 몰려 있어 은행채 발행이 시작되면 해소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요건 충족시 디딤돌대출과 동시 이용가능

‘특례보증자리론’ 일문일답

대출실행, 신청일부터 30일 소요
주택 아닌 준주택은 이용 불가능
실직자, 건보료 등 내역 통해 심사

금융위원회는 11일 특례보증자리론 대출가능금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금액으로 적용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5억원 아파트는 LTV 70% 적용시 3억5000만원이다. 이 경우 대출한도는 5억원이지만 3억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반대로 8억원 아파트에 LTV 70%를 적용하면 5억6000만원으로 대출한도 5억원을 넘어 5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특례보증자리론과 관련한 일문일답.

—특례보증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2월 중 주택매매계약 잔금을 치러야 하는 차주는 이달 30일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접수 가능일(1월 30일)부터 한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특례보증자리론 이용이 어렵다. 이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기존 정책모기지(보증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야 한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증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두 상품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디딤돌 지원요건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다. 디딤돌 대출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로 최대한의 한도를 받고, 부족한 경우 특례보증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 만큼 신청해 받으면 된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도 이용 가능한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다. 특례보증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특례보증자리론을 받으려는 담보주택의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례보증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구입 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이용 가능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폐업 또는 실직인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직전 연간소득으로 심사한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본인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은 불가하다. 충분한 대출한도를 지원받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새해맞이 세뱃돈 봉투 배부

계묘년 상징 토끼 캐릭터 등 적용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제공

우리은행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새해맞이 세뱃돈 봉투’를 제작해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뱃돈 봉투는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을 상징하는 검은토끼, 흰토

끼 캐릭터와 더핑크퐁컴퍼니의 인기 캐릭터인 핑크퐁과 아기상어 캐릭터 두 종류로 제작돼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금융 상품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우리은행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세뱃돈 봉투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우리은행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GOOD
LUCK



2+0+2+3년

새해를 하나로 합하면 7이 되는
계묘년의 행운 공식처럼
올 한해 좋은 일들이 가득하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혼다 재도약 시동… 신차 출시, 온라인 통해 판매구조 혁신

CR-V·어코드 플체인지 모델 등 상반기 2종 하반기 3종 신차 출격
구글 협업 커넥티드 서비스 제공

클릭 한번으로 구매·시승까지
온라인 플랫폼 통한 판매 시도
전국 영업사원, 큐레이터로 전환

“올해 5종의 신차 출시와 함께 국내 자동차 시장 비즈니스 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일 것이다.”

혼다코리아가 올해 새로운 플랫폼과 신차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제2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지홍 혼다코리아대표는 10일 서울 강남구 파크하얏트 서울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한국 진출 22주년을 맞은 혼다코리아의 중장기 비전과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혼다코리아는 올해 국내 시장에 대표 SUV(스포츠크리티차량)인 CR-V와 중형 세단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완전변경(플체인지) 모델과 함께 총 5종의 차량을 출시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가 2023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할 방침이다. 특히 혼다코리아는 기존의 오프라인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에서 혼다 자동차의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차량과 제품 가격 공개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올 상반기 CR-V를 시작으로 2종, 하반기 3종의 신차를 출시할 것”이라며 “4종은 혼다가 가지고 있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넥티드 서비스는 혼다 앱을 통해 시동을 걸거나 원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담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다는 2015년부터 구글과 손잡고 차량용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을 진행했다. 혼다의 커넥티드 기술과 구글의 첨단 기술 간의 협업을 통해 모빌리티와 리빙을 원활하게 연결해 소비자와 가까운 차량 내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글로벌 공개를 통해 선보

인 CR-V 플체인지는 혼다 패밀리룩을 따른 세련된 외관 디자인에 기존 대비 전장과 휠베이스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수입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베스트셀링카로 혼다코리아의 반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전망이다

혼다코리아는 차량 판매 방식에서 혁신을 꾀하고 있다. 바로 온라인 판매다. 소비자들이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차를 구매하거나 시승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폴스타가 온라인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도 온라인 판매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차량 판매 구조를 바꾸기 위해 2년간 준비했다. 가장 먼저 딜러사들과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이 탄생했다”며 “과거 영업직원이 차량 판매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구매 후 고객이 차량을 주행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혼다코리아는 2013년 서울 모터쇼에서 업계 최초로 선보인 ‘혼다 큐레이터’를 전국 혼다 전시장에 도입한다. 당시 모터쇼에서 단순히 차량을 전시하고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 차량의 정보에 대한 설명과 상담으로 방문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향후 전국 혼다 전시장에서는 기존 영업사원이 혼다 큐레이터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 설명, 시승, 상담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혼다의 전동화 계획도 발표했다. 혼다는 2030년까지 전체 완성차 생산비율 중 40%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2035년에는 80%, 2040년까지 모든 제품을 전동화 모델로 변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혼다는 2030년 회계연도까지 전기화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5조엔(약 47조78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통합 출범 5년’ 맞은 현대트랜시스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선도기업 도약”

4년 만에 매출 10조… 30% 성장
UAM·PBV 등 신사업 역량 확대

현대트랜시스가 통합 출범 5년차를 맞아 ‘핵심 기술 강화’, ‘미래지향적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외형적 성장을 이뤄낸 만큼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사장은 2023년 신년사에서 “현대트랜시스는 지난 4년간 자동차 부품기업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2023년을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내실경영 강화와 UAM·PBV·로보틱스 등 신사업 역량 확대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대트랜시스는 2019년 현대다이모스와 현대파워텍이 통합해 자동차 파워트레인과 시트를 생산하는 자동차 핵심 부품 기업으로 출범했다.

전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자동변속기, 수동변속기, 듀얼클러치변속기, 무



현대트랜시스 미래형 모빌리티 컨셉시트.

단변속기, 하이브리드 변속기 등 자동차 변속기 전 라인업 생산이 가능한 건 현대트랜시스가 유일하다. 자동차 시트는 소형 세단부터 대형SUV(승용형 다목적차)는 물론 전기차(EV), 목적기반형차(PBV)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제품을 생산한다.

2019년 출범시 7조7000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30% 성장한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글로벌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가 발표한 2022년 ‘100대 부품사 순위’에서도 32위(국내 2위)에 올랐다.

현대트랜시스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선도 기업으로 도약도 준비한다. 전기차(EV),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에 쓰이는 전동화 파워트레인 솔루션도 갖췄다.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한 일체형 구조(3-in-1)의 전기차 구동시스템 ‘e-Powertrain’은 현대트랜시스의 전동화 기술 집약체다.

자동차 시트도 미래 모빌리티를 대비한다. 시트의 경량화를 통해 주행거리 향상을 꾀하고, 고객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트의 움직임, 기능, 형태를 토탈 인테리어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성운 기자

표준 코스 보다 약 20% 줄여준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대신, 세척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씽큐앱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했는지도 확인해준다.

‘야간조용+ 코스’는 야간조용 코스를 강화해 표준 코스보다 3데시벨이나 작은 소리를 낸다. ‘세척 종료음’도 2종에서 12종으로 대폭 늘려 다양한 멜로디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식기세척기 업그레이드 실시

에너지 절감 등 새 기능 10종 추가

LG전자 식기세척기가 소프트웨어만으로 성능을 높인다.

LG전자는 17일부터 UP가전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트루건조’를 대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전기 사용량과 소음을 대폭 줄이는 등 새로운 기능 10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씽큐 앱을 통해 제공되며, 식기세척기 2만 2000여명 사용자 실사용 데이터 약 38만건을 분석해 개발됐다.

‘에너지 절감 코스’는 전기 사용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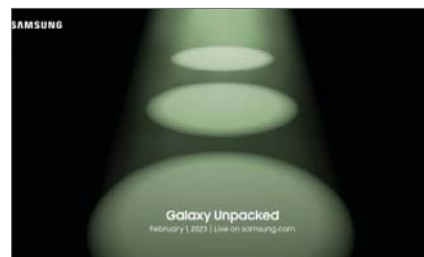
삼성전자, 내달 1일 美서 ‘갤럭시 언팩’

3년만에 대면 행사, 공식 초청장
갤S23 후면 카메라 디자인 변화

삼성전자가 현지시간 2월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3’을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11일 공식 초청장을 전세계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발송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제품은 갤럭시S23 시리즈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행사를 대면으로 연다.

국내 시간 기준으로 내달 2일 오전 3시 삼성전자 뉴스룸·홈페이지·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초청장은 갤럭시S23의 후면 카메라 디자인 변화를 예고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컨투어컷’이 사라지고 후면에 카메라 렌즈만 장착될 가능성이 크다. 컨투어컷이 사라진 자



삼성전자 ‘언팩 초대장’ 이미지 /삼성전자

리에는 카메라 배열을 단순화한 ‘물방울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1 시리즈부터 후면 카메라 배열을 곡선으로 구분한 ‘컨투어컷’을 적용해 왔다. 틱스터들에 의하면 대표 색상으로는 바닐라, 핑크, 그린 등으로 알려졌다.

언팩 대면 행사는 현지시간 기준으로 1월 오전 10시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허정운 기자

고공행진 에어프레미아, 장거리 노선 확대

상반기 보잉 787-9 기종 2대 추가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지난 2022년 7월 인천-싱가포르 노선을 시작으로 10월 호찌민, 로스앤젤레스 취항에 이어 12월 도쿄까지 취항한 이후 탑승율이 상승세에 올랐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2017년 설립되어 2019년 3월 항공사업면허를 획득한 대한민국의 신생 항공사다. 싱가포르, 호찌민, 도쿄 노선은 주 4회, 로스앤젤레스 노선은 주 5회 취항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중 2대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 기종을 추가 도입하여 총 5대의 기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에게 2022년이 국제 여객 노선을 시작하는 한 해였다면,

2023년은 본격적인 장거리 노선 확대의 해가 될 전망이다. 추가 도입 기재를 활용하여 LA 노선에 이어 뉴욕, 프랑크푸르트, 파리 노선 등 장거리 노선 취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저비용 항공사(LCC)들과 달리 처음부터 보잉 787-9 대형 기종을 도입하고 있으며, 평균 기령이 2년 이내일 정도로 새 비행기의 쾌적함과 안전성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기내식, 기내 엔터테인먼트, 프리미엄 좌석과 기내 와이파이, 넉넉한 수하물 용량 등 저비용 항공사와 달리 대형 항공사(FSC)에 필적하는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면서, 최고의 가성비, 가심비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평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

한화솔루션, IRA 전략적 대응… 美에 태양광 공장 통큰 투자

〈3조2000억원〉

조지아주에 셀·모듈 공장 추진
올 상반기 착공, 내년부터 생산
美 사상 최대 에너지 시설 예고
세액 공제 등 IRA 혜택 기대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은 17분기,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은 12분기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구영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대표는 “한화솔루션이 북미 태양광 시장 공략을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조성한다”며 미국 태양광 산업 선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솔라 허브’ 북미 최대규모 생산 능력

한화솔루션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서 ‘2023년 한화솔루션 신년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한화솔루션은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현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한다.

연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현재 연 생산 능력이 1.7GW인 모듈은 생산 라인 추가 증설을 통해 총 8.4GW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북미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가 11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열린 2023년 한화솔루션 신년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태양광 시장이 매년 20% 안팎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일 기업으로서 북미 지역에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한화솔루션은 우선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내년 말 상업 생산을 목표로 각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 통합 생산 단지를 건설한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가치사슬 5단계 가운데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부가세·재산세·법인세 감면 ▲현금 지원 ▲부지 단가 할인

▲인프라 건설 지원 ▲채용관련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조지아가 최적의 지역으로 판단했다.

◆IRA 대응·활용에 적극적

한화솔루션은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IRA에도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RA가 본격 발효된 올해부터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한화솔루션의 이번 투자가 IRA 혜택을 받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에는 모듈 기준 현지 생산 제품에 W당 최대 18% 세액 공제를 해준다.

한화솔루션의 자금조달 방법도 IRA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다. 신용인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재무실장은 “작년 말 연결기준 보유현금 2조원과 올해와 내년도의 영업활동현금 흐름이 있고, 완공 이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초기 투자자금은 1조원 남짓인데 그 부분은 본사 보유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필요 부분에 대해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자금에 우호적인 정책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 측은 당장 7000억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풀 케파 생산을 가정할 경우 최대 세액공제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화솔루션은 솔라 허브 생산라인에 지난해 지분을 인수한 REC실리콘이 만드는 폴리실리콘 투입을 검토 중이다. REC실리콘은 워싱턴주 모지스레이크에 위치한 수력 발전 기반의 친환경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다. 올해 말부터 약 5.3GW의 셀 생산 가능 규모인 연간 1만6000톤의 폴리실리콘을 양산할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은 내년부터 솔라 허브가동이 본격화하면 북미 지역에서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인 모듈까지 5단계 밸류체인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된다.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태양광 제품 판매를 통해 현지 시장 1위 자리를 더욱 탄탄히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 대표는 “솔라 허브는 매년 20% 안팎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태양광 산업의 핵심 생산 기지이자 밸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한군데 모으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공개… 메모리 반등 트리거 될까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DDR4 중심 메모리 시장 개편 기대

반도체 시장을 되살릴 영웅이 돌아왔다. 인텔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사파이어 래피즈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우려와는 달리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차세대 제품도 연내 출시를 예고하면서 메모리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텔코리아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온 사파이어 래피즈 제품군을 공개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일 글로벌 출시에 곧이어 국내에서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인텔 서버용 CPU는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 확보하고 있을 만큼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업그레이드 수요를 주도해 반도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



인텔코리아 나승주 상무가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소개하고 있다.

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사파이어 래피즈는 DDR5 D램만 전용으로 지원해 DDR4 중심이었던 메모리 시장을 개편할 필수 조건으로 지목돼왔다. DDR5 D램이 DDR4 D램 대비 가격이 높은 만큼, 메모리 가격 하락세를 멈춰설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인텔은 이날 사파이어 래피즈가 지난

해부터 고객사에 공급 중이라며 이미 램프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 실제 제품 출시는 하반기에서야 가능할 것이라던 우려를 완전히 불식했다. 출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상품성에 완벽을 기하고 생산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사파이어 래피즈가 끝이 아니다. 인텔은 올해 말 차세대 제품인 에메랄드 래피즈, 그리고 내년에는 그레나이트 래피즈까지 연달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에메랄드 래피즈가 사파이어 래피즈와 출시 시기가 1년 미만으로 붙어있긴 하지만, 서로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만큼 수요를 간섭하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경쟁사와 간격이 좁혀진데 대한 대응으로 추정된다.

DDR5 D램만이 아니다. 사파이어 래피즈는 처음으로 PCIe5.0과 함께 CXL(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1.1 규격도 지원한다. CXL은 주변 기기들과 빠르고 광범위하게 통신할 수 있어 컴퓨팅 속도를 높일 획기적인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손꼽힌다. 인텔이 처음 ‘컨소시엄’을 발족해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도 앞장서서 CXL을 지원하는 메모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성능 개선도 큰폭으로 이뤄졌다. 코어를 60개나 담아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가속기를 업계에서 가장 많은 12개나 내장해 다양한 사용자에게 최적화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온디맨드’ 방식으로 제공해 수익 모델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세대 제품보다 와트당 성능을 평균 2.9배 높여 효율성도 제고했다.

/김재웅 기자 juk@

미디어로그, 중고폰 시장 본격 진출

중고폰 매입 플랫폼 ‘셀로’ 오픈
사회적 가치 실현 ESG경영 일환

미디어로그가 중고폰 매입 플랫폼을 출시하며 중고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미디어로그는 중고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접근성을 향상한 온라인 중고폰 매입 플랫폼 ‘셀로(SELLO·사진)’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시장조사기관 IDC가 최근 발표한 세계 중고폰 시장 전망 자료에 따

르면 중고폰 시장은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10.3%를 기록하고 시장 가치는 999억 달러(약 1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중고폰 거래가 폭발적으로 커짐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잔존가치 판단 부재와 제품가격의 변동이 심해 소비자 불만이 높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미디어로그는 미래 성장성에 비해 시장에 대한 불신이 강한 중고폰 시장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시장 진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셀로 출범은 중고폰 매입시장을 넘어 ‘가치의 선순환을 통해 더 좋은 공유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 경영활동의 일환이다.

셀로는 중고폰 거래 고객에 좋은 가격에 쉽고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판매금액으로 새로운 폰과 통신요금, 콘텐츠 구독에 보탬이 되도록 통신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셀로는 ▲데이터 이중 삭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걱정이 없고(Safe)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며(Simple) ▲정교한 검수, 공정한



미디어로그는 중고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접근성을 향상한 온라인 중고폰 매입 플랫폼 ‘셀로(SELLO)’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미디어로그

가격 책정(Smart)으로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LG유플러스

중소협력사 납품대금 현금 200억 조기지급

LG유플러스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2000여 중소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200억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추석·설 명절 전 납품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들과 상생을 도모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조기 집행된 납품대금 누적 액수는 34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기 집행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등의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된다. 협력사는 신제품 생산 및 설비 투자, 연구개발 비용 등에 조기 확보한 대금을 활용할 수 있다.

동반성장을 위해 LG유플러스는 협력사의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IBK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이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납품이전에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과 5G 기술 기반 신규 서비스와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5G 이노베이션 랩’, 중소 협력사들이 통신장비나 솔루션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채택된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구매를 보장하는 ‘협력사 제안의 날’ 등을 통해 협력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다올투자證 “선택과 집중”… 자회사 매각해 유동성 대응

다올신용정보 100% 매각 이어
인베스트먼트도 지분 전량 매각
사업 재정비해 자본 효율성 제고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 매각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유동성 위기 이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핵심 자회사인 다올인베스트먼트 보유 지분 52.0% 전량을 매각할 예정이다. 예상 인수 가격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1세대 벤처캐피탈(VC)인 다올인베스트먼트는 1981년 설립된 KTB네트워크가 전신이다. 대표적인 투자 성공 사례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이 꼽힌다.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다올인베스트먼트의 매각 주관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공격적인 베팅으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

융지주는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신년사에서 “시장 환경이 어려울수록 자회사들의 핵심사업 시장 지위를 제고해 수익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증권과 보험, VC 등 지난해 시장이 불안정해 보유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거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단계는 아니다. 우리금융지주 외에도 미래에셋그룹, 신영증권, 유진그룹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올투자증권이 VC 자회사를 매물로 내놓은 건 부동산 PF 자금 시장 경쟁 상황에서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다. 다올투자증권은 기존 KTB투자증권에서 사명 변경 후 종합 금융그룹 성장 도모했으나, 유동성 위기가 커지

자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다올인베스트먼트에 이어 태국 법인의 매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태국 법인 지분 69.9%다, 앞서 지난해 말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 4일에는 메이슨캐피탈과 리드캐피탈매니지먼트에 다올투자증권이 보유한 다올신용정보 지분 100%를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금액은 130억원이다.

다올신용정보는 1999년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설립된 23년 경력의 신용정보회사다. 채권관리 및 추심, 신용조사, 민원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 15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전국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갖췄고, 예보채권 및 캠퍼채권 회수실적이 업계 1위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그룹 사업 구조 재편에 따라 일부 계열사를 매각

하게 됐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룹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향후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근 다올투자증권 대표이사도 신년사를 통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창근 대표는 “지난해 상반기 사상 최대이익을 기록한 것이 무색하게 하반기에는 자금시장 불안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이로 인해 우리는 제 살을 깎아 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만 했다”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존 사업을 재정비하고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바닥 찍었나… 네이버·카카오 반등, 주가 전망은 ‘글썩’

기술주 투심 회복되면서 상승세
기관·외국인 네이버·카카오 매수
상승 제한 vs 지속 상승 전망 갈려

지난해 경기침체 우려로 약세가 이어졌던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장 대비 1200원(1.98%) 오른 6만 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5만 3100원에 마감한 지난해 연말 종가 대비 16.57% 오른 수치다. 네이버 역시 이날에만 2000원(1.04%) 올랐으며, 작년 말 보다는 9.86% 높아졌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카카오와 네이버를 각각 1726억원, 781

NAVER
kakao

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순매수 상위 종목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11위(475억원), 카카오뱅크 14위(344억원) 등도 순위권에 들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같은 기간 네이버를 742억원 어치를 사모으면서 순매수 순위 7위에 올랐다. 다만 카카오의 순매수 금액은 296억원으로 16위에 그쳤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을 665억원 어치 사들이면서 8위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주 대부분은 중앙은행 긴축 정책 속에서 큰 하락을 겪은 바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만 하더라도 지난해 종가가 연초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2, 3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네이버는 37만8500원에서 17만 7500원, 카카오는 11만2500원에서 5만3100원으로 주가가 각각 53%, 52% 추락한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미국의 임금상승세 둔화, 실업률 감소 등으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루에만 1.01% 오르면서 마감하기도 했다.

다만 향후 두 종목에 대해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네이버에 대해 광고 매출 성장률 부진을 예상하면서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예측보다

광고 매출 성장률이 부진하다”라며 “경기침체로 인해 주요 광고주들의 광고 예산이 크게 축소됐고, 이태원 참사 또한 4분기 광고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광고 및 커머스 시장 성장률 둔화를 반영해 주가수익비율(PER)를 기존 14배에서 12배로 낮췄으며, 목표주가를 3만원 낮춘 27만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 내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로 업계 가치가 올라 국내 플랫폼 기업의 주가 상승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리츠증권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23만원, 7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로 업종 밸류에이션 바닥권에 위치한 중국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가팔랐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국내 업체의 직·간접적 수혜에 따른 주가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구미 ‘형곡 3주공 재건축’ 금호건설, 단독 수주 따내

금호건설이 올해 첫 수주를 재건축사업으로 따내면서 정비사업 분야에서 첫 출발을 내딛었다.

금호건설은 경북 구미시 ‘형곡 3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약을 조합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형곡 3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경북 구미시 형곡동의 ‘3주공 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 금액은 약 1838억원으로 금호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한다.

정비사업 분야서 올 마수걸이
1838억 규모… 2026년 준공

작년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건수 32% ↓ 채권전문가들 “금통위 베이비시텟 전망”

총 4810건… 주식시장 부진 영향
행사금액은 2.9조… 30.6% 줄어

지난해 주식시장 부진으로 주식관련 사채 권리 행사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건수는 4810건으로 전년 대비 31.9% 감소했다. 권리행사 금액은 2조8967억원으로 전년 대비 30.6% 줄었다.

주식관련사채는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으로 발행사 또는 타 회사 주식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채권

을 뜻한다.

종류별 권리행사 건수는 CB, EB, BW가 각각 2627건, 124건, 2059건으로 2021년 대비 42.1%, 55.4%, 8.5% 감소했다.

종류별 권리행사 금액은 CB가 2조 12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3.4% 감소, EB가 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 감소, BW가 6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줄었다.

지난해 주식관련사채 행사금액 상위 3개 종목은 두산중공업 1회 WR(3840억원), 대한항공 92회 CB(3000억원), 두산에너지 2회 WR(60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원관희 기자 wkh@

국내 채권전문가 67%가 오는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베이비시텟(0.25%p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185개 기관, 800명)를 설문 조사해 ‘2023년 1월 채권시장지표(BMSI)’를 산출한 결과 종합지표가 한 달 전보다 14.8포인트(p) 하락한 84.2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 인원의 응답으로 산출되는 BMSI는 100 이상이면 시장이 호전, 100이면 보통, 100 이하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부문별로는 금리전망 BMSI가 86.0

으로 전월(88.0) 대비 소폭 악화됐다. 응답자의 40%가 금리상승에 응답해 전월(38%) 대비 2%p 상승했고, 금리보합 응답자 비율은 34%로 전월(36%) 대비 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 금리인상 사이클의 예상 종료시점이 늦춰지면서 2월 금리상승 응답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물가BMSI는 95로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110) 대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18%가 물가상승에 응답해 전월(10%) 대비 8%p 상승했고, 물가보합 응답자 비율은 69%로 전월(70%) 대비 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경 기자

/김대환 기자 kdh@

버스 속
소소한 재미
버스족(族)
BUS JÖK

버스 매일 탑승하시나요?
서울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물합니다.



[버스족 이벤트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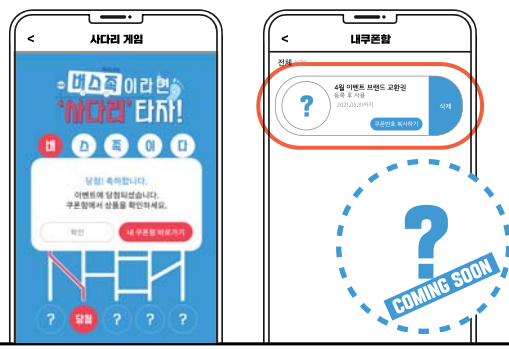
- 1 서울 시내 버스를 타고
YapTV 속 콘텐츠를 본다.



- 2 영상 속 QR코드를 촬영한다.
※버스족 앱의 QR촬영 카메라만 참여 가능!



- 3 이벤트 참여하면
[다양한 브랜드] 선물이 쏩!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버스족을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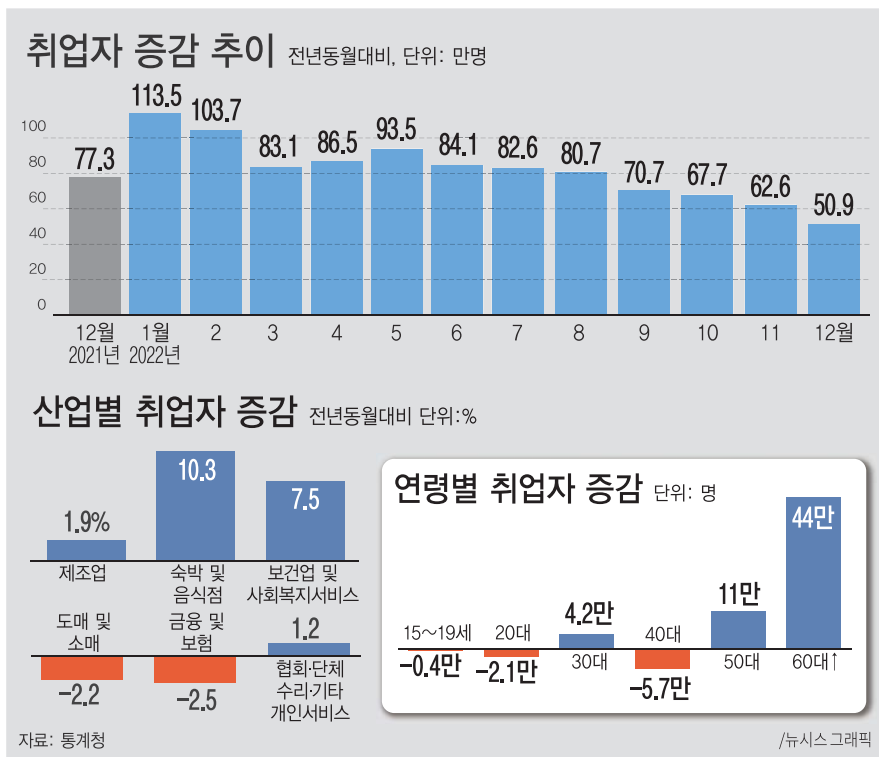
‘고용시장 훈풍’ 취업자 82만명 증가… 22년 만에 최대폭

일상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 영향
고령층 일자리 절반 이상 차지
경기침체로 올 취업자 증가 꺾일 듯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명 넘게 늘어나며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난해 취업자 전망치 81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 터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꺾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6000명(3.0%) 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연간 취업자 수가 80만명 넘게 증가한 적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987년(84만9000명), 2000년(88만2000명)에 이어 지난해가 세 번째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8000명으로 1998년 국제 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36만

9000명 증가세로 돌아서며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등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가 수가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4만1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금융 및 보험업은 -2만6000명으로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꺾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 수출, 돌봄 수요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절반 이상 차지하며 전체 일자리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5만2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81만6000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0대 19만6000명, 20대 11만2000명, 30대 4만6000명, 40대 3000명 순으로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80만5000명(5.4%)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5.9%로 전년보

다 1.3%포인트 올랐다. 임시근로자도 4만3000명(0.9%) 증가했는데, 일용근로자는 10만명(-8.1%)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은 6만1000명(1.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8000명(4.5%)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연간 고용률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가장 높다.

실업자 수는 8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만5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 경제 둔화에 맞물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명으로 더 낮게 봤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기술탈취 과징금 한도 20억으로 2배 상향

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하도급대금 연동시 벌점 경감

하도급업체 기술탈취에 대한 정책과 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원자재 가격 인상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사업자 기술 유출의 경우 범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책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한도를 최대 2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올린다. 기술유출로 침해된 기술의 내용과 해당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지만 과징금이 작아 범위반 역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각각 최고 1점, 1.5점씩 최대 2.5점 깎아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감경하되,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이상 ~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의 벌점을 감경하도록 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내린다.

아울러 앞으로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했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원사업자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해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과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 공시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부동산 규제완화에 ‘미분양 전망지수’ 감소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 기대감 반영
아파트분양전망지수 낙달 연속 ↑

최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전월(135.8) 대비 5.9포인트(p) 하락했다.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지난해 9월(119.7)을 시작으로 ▲10월(122.7) ▲11월(131.4) ▲12월(135.8) 계속 상승했지만, 이달 129.9로 떨어지며 1년 만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6.3p 상승한 58.7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연속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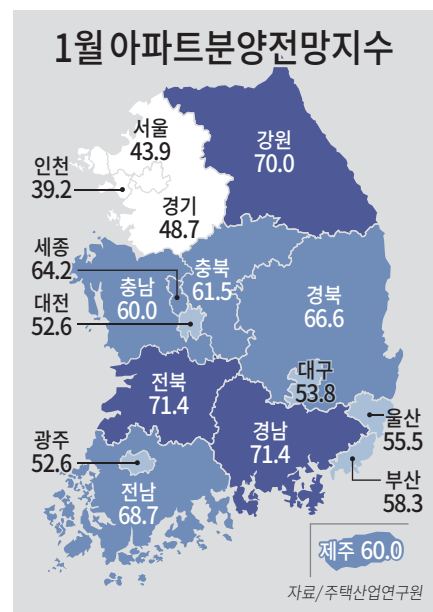
세종과 기타 지역에서 비교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71.4)과 강원(70.0) 지역은 전달 대비 각각 21.4p, 20.0p나 상승했다.

경남은 지역 제조업 생산의 증가세로 인한 지역 경기 회복이 반영됐고, 강원 지역의 경우 도청 이전 등 지역개발 이슈가 작용해 지수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이달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43.9로 전달 대비 1.4p 낮아졌다.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서울은 3.3p(47.2→43.9) 하락했고, 공공과임 상태인 인천은 3.2p(42.4→39.2) 하락했다.

주산연은 해당 지수들의 변화원인을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



련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며 실거주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권지혜 주산연 연구원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해제,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며 규제 완화 적용 시기에 맞춰 사업자들이 분양일정을 조정해 추후 분양 물량과 미분양 물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올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포스코홀딩스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사무소 개소

벤처기업 발굴·육성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공간인 ‘체인 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개소했다.

10일(미국 현지기준) 실리콘밸리 산호세 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삼성, SK, 한화 등 국내 투자기관과 대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협력담당, 도한이 포스코아메리카법인장, 임승규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는 포

스코그룹이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포항·광양·서울에서 운영 중인 사무소를 미국 실리콘밸리로 확장한 것이다.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협력담당은 “포스코그룹은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통해, 육성·투자 중인 국내 벤처기업의 현지 파트너 연결과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창업-투자-육성-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글로벌 벤처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라며 “진출 초기 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무 회의공간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벤처 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본투글로벌, 벤처기업(11개사)과 함께 ‘포스코그룹 육성·투자 벤처 글로벌 밸류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스코그룹이 육성, 투자하는 국내 우수 벤처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투자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생협력기금 16억원을 바탕으로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에 집중 투자한다. 또 본투글로벌은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벤처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해외가 살 길”… 변곡점 맞은 플랫폼 공룡, 글로벌 정조준

정부 독과점 규제 등 플랫폼 압박
네이버 “5년 내 사용자 10억명”
글로벌 톱 티어 기업 목표 선언

카카오, 콘텐츠 기반 사업 확대
메타버스로 ‘비욘드 코리아’ 실현

네이버와 카카이가 글로벌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정부가 최근 플랫폼 독과점 규제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해외 시장 공략 강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네이버는 북미, 유럽 등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흥은택 단독 대표 체제가 본격화되는 만큼 글로벌 사업 확장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오는 1월말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인 ‘کم패니언데이’를 개최해 올해 사업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최 대표는 ‘네이버가 글로벌 톱 티어 인터넷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표는 취임 직후에도 “5년 내 글로벌에서 10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매출 15조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네이버는 먼저 ‘글로벌’, ‘기술’, ‘SME(중소상공인)’ 등에 집중하며 사업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네이버는 매년 연간 매출의 25%를 R&D에 투자해오고 있다.

네이버는 글로벌 기술연구네트워크



흥은택 카카오 대표

도 꾸준히 강화했다. 실제 네이버는 미국, 유럽, 한국을 잇는 글로벌 AI(인공지능) R&D 벨트를 확보했다. 프랑스 제록스리서치센터 인수, AI(인공지능) 연구 공간 ‘HUST-네이버 AI 센터’ 설립, 미국 R&D 조직 구축 등이 바로 그것이다.

네이버는 특히 포쉬마크인수를 지난 6일 마무리했다. 포쉬마크를 통해 글로벌 C2C(개인간 거래)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최근 700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스마트시티 프로젝

트인 ‘네움시티’ 사업 수주전에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대표 및 임원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에 방문하는 일정에 동행한다. 또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일행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네이버 기술에 관심을 드러냈다.

카카오도 본격적인 글로벌 전략 추진에 나선다.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해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남궁훈 전 대표를 미래이니셔티브센터 내 상근 고문으로 임명했다. 재발방지대책공동소위원회장으로 활동한 고우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최고클라우드 책임자(CCO)는 대표 직속으로 신설된 인프라 부문을 맡기로 했다.

카카오는 관심사 기반의 비(非) 지인간 연결을 담당하는 오픈링크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며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다.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픽코마 등이 보유한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업으로 메타버스를 낙점했다. 카카오프 메타버스인 ‘카카오 유니버스’를 발판으로 ‘비욘드 코리아’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 유니버스의 오픈링크 서비스를 활용해 비지인간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글로벌서비스와 연계해 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다양한 글로벌 메가 히트작을 선보이며 글로벌 스튜디오로서의 입지를 다졌는데, 올해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K콘텐츠 열풍을 이끌 대표 기업으로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웹소설 시장은 웹툰 시장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새해에는 북미 웹소설 진출 강화를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中企 해외진출 지원 팍팍… 올 2292억 투입

중기부, 관련사업 예산 6.6% ↑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2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갑자기 불거진 중국의 비자중단 조치에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바로 가동해 발빠르게 대응한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수출지원사업은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9개 사업으로 전년 예산의 2150억원보다 6.6% 늘었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상품의 수출 통관 실적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출과 간접수출실적도 동일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또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신설해 아직 진출하지 않았던 국가로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수출 지원방향도 개편했다.

아울러 해외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등의 서비스를 메뉴판식

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와 통합·운영한다.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개편해 수출바우처와 함께 모집한다. 최종 선정되는 경우 수출바우처를 자동 지원한다.

올해부터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에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수출기업이 전체 기업 중 15% 이상 차지한다. 수출 성공 가능성이 큰 내수기업 지원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 물류전용바우처는 해상, 항공운임 등 국제운송비를 지원한다.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신시장 중심으로 편성하고 신산업·신기술 해외전시회도 확대한다. 전 세계 12개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해외거점인 ‘수출 인큐베이터’는 기업간 네트워크·협업에 최적화된 개방형 공유 공간으로 개편한다. 현지 법인계좌 개설, 제품·디자인 현지화 등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유력 VC(벤처캐

피탈) 대상 유망기업 추천 등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확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 전 세계적 수요 부진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해 위기에 강한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출바우처 등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발표와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제주수출지원센터에 ‘중국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교부, 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범부처 TF(태스크포스) 등이 구축되면 중소기업 애로사항 전달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삼표그룹, 덤프트럭 운송매칭 플랫폼 선포

앱 ‘배차장’, 세금신고·정산 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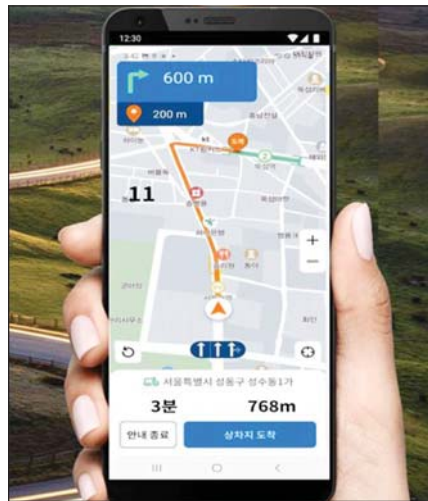
삼표그룹이 국내 건설자재 운송 시장 최초로 골재, 토석 등을 나르는 덤프트럭 운송 매칭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였다.

삼표그룹 계열인 에스피네이처는 실시간으로 최적의 노선을 찾아내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해주고 세금신고 등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운송 애플리케이션 ‘배차장(사진)’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차장’은 화주가 플랫폼에 가입한 후 출발지, 도착지, 운송량 등 품목 및 운임 정보가 담긴 정보를 올리면 차주가 해당 정보를 선택한 뒤 운송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서비스다.

핵심은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해 상생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세한 차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중개수수료와 빈차로 돌아오는 ‘공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산과정 역시 플랫폼 내에서 투명하게 처리되는만큼 기존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전



망이다.

‘배차장’의 주요 기능은 ▲근거리 배차 서비스 정보 공유 ▲투명한 운임 정보 공개 ▲차량 유형별 빠르고 안전한 정산 서비스(세금 신고) ▲실시간 책임 배차 모니터링 등이 있다.

단순히 물량과 차량을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서비스와 세금 신고까지 연동해 모바일 원클릭으로 차별화된 운송 플랫폼을 구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정부 정책자금 지원” 스팸문자 주의보

신보중앙회 “소상공인 대상 확산”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정책자금을 빙자한 스마트폰 스팸문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표적인 스팸문자가 ‘귀하께서는 보증재단에서 지원되는 ‘특례지원 긴급대출’ 신청 대상으로 안내드렸으나 현재까지 미신청으로 분류돼 재안내 드립니다. 이 문자 수신 대상자께서는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상품 안내를 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스팸문자(피싱 추정)가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각별하게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스팸문자 특징은 ▲정부의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와 유사한 명

칭의 대출상품 안내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의 용어 사용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요구 ▲접수 마감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지역신보와 관계없는 전화번호로 즉시 신청 유도 등이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지역신보의 보증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대출 홍보 문자를 수신한 소상공인은 해당 전화번호로 곧바로 회신전화를 하지 말고 전국 17개 지역신보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국내 완성車업계, 설 앞두고 무상점검 실시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완성차 업체가 무상점검 서비스에 나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설 연휴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함께 ‘2023년 설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국내 5개 제작사(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차)가 모두 참여해 실시한다.

현대차는 1282개 서비스 협력사(블루렌즈)에서, 기아는 771개 서비스 협

력사(오토큐)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하여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은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르노코리아자동차는 7개 직영 서비스센터 직영 서비스센터, 쌍용차는 2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무상점검 기간 동안 지정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은 엔진·에어컨 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도 점검,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와이퍼, 휴즈 상태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의대 정원 확대두고 ‘인력 부족’ vs ‘의료질 저하’ 온도차

2006년부터 정원 3058명 불변
2023학년도 서울·수도권 의대
수시전형서 12대 대학 정원채워
공공의대 신설 등에 기대감도

현장선 ‘양질 의료서비스’ 기반
교육강화·의료시스템 개선 요구

부족한 의사수요만큼 의대 지원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다. 대학가에도 의대 쏠림이 심화된 만큼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지만 현장에서는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를 맺고자 중단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2023년 업무보고에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포함하면서 주춤했던 의대 정원 확대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연간 3058명으로 불변 상태이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입시계에서도 의대 선호가 확실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기 위한 의대 증원은 꾸준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이공계 인재들의 수시 변수 중 하나로 급증한 의대 선호도가 꼽히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약대 모집

인원이 1700명이나 증가했음에도 의대, 치대, 한의대 등에서 경쟁률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메디컬 선호 현상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금년도에 서울대 주요 공대 합격생들의 절반 이상이 빠져 나간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의대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의대 수시에서는 지역인재 40% 의무선발 첫해인 만큼 의대 선호도가 급부상했다. 2023학년도 서울·수도권 의대 수시전형을 살펴보면 12개 의대 모두 수시에서 정원을 채웠다. 이는 최근 5년새 첫 기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 의대의 수시 미등록 인원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는 0명, 지방권도 지난해 의대 수시 미선발 52명에서 12명으로 급감했다.

공공의대 신설 기대감도 탄력을 받고 있다. 공공의대는 지방 등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하게 되며,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 비용 등 정부 지원율이 높아 더욱 주목받는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의대 설립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단된 상태인 의정 협의체를 재개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동원해서라도 의대

신설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의대 등 의대 정원 확대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이다. 부족한 의사 인력의 관점에서 공급에 초점을 둔 찬성 입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기반한 의료 인재들의 교육 강화 등 의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의료계에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의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적하며 의료 시스템 개선 없이 수요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동국대 씨너렉스, 중기부 지원 ‘팁스’ 선정

창업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2년간 R&D자금 5억원 지원받아

동국대학교 창업기술원은 ‘조정밀 위성항법 장치 전문 스타트업’ 씨너렉스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씨너렉스는 동국대 창업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다.

팁스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 투자와 정부 자금을 매칭하고 창업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해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팁스에 선정된 씨너렉스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로봇 등 무인이동체가 자율적으로 주행 및 작업하는데 필요한 정밀측위 항법 장치를 개발하는 국내 리딩 스타트업이다. 현재, 국내 주요 대



창업보육센터 씨너렉스 입주공간에 서있는 박재덕 대표. /동국대

기업 및 자율주행, 드론 스타트업을 포함해 약 150개 이상 고객사에 개발한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 주관 2022년 드론국제 샌드박스사업자로 선정돼 개발 완료한 드론 전용 위성항법장치의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씨너렉스는 팁스 운영사인 한국과학기술지주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향후 2년간 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앞으로 연구개발 자금 수혜를 통해 ‘GPS 음역지역 대응이 가능한 다중센서 퓨전기반 GNSS RTK 항법제어기 제조 및 양산화 기술’ 과제를 독자 수행할 예정이다.

씨너렉스는 2018년 3월,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분야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 동국대와 서울산업진흥원 주관의 2022 Start ‘UP Boot’ UP 창업 IR 경진대회 대상, 서울지역 창업보육센터 연합 BOOT-UP IR Competency 한국창업보육협회장상 입상 등을 기반으로 Seed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박재덕 씨너렉스 대표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씨너렉스는 무인화 세상에 필요한 고도화된 조정밀 위성항법장치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2023학년도 대학생 예비취업자 발대식’에서 90여 명의 학생과 지도교수가 ‘산업안전 우리가 지키자’를 외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순천향대

순천향대, 재학생 90여명 예비취업 발대식

조기취업형 계약 3개학과 대상

순천향대학교는 10일 교내 유니토피아관 석경홀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인 스마트팩토리공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 재학생 9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취업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 과정을 마친 3개 학과 재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무실습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통한 기업 적응력 강화 ▲법정 교육 이수 등 예비취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민 창의라이프대학장 격려사 ▲선·후배가 함께한 멘토링 영상 시청 ▲학과별 대표 학생 발표 ▲성인지 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공문서 작성법 특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 번째 특강은 김영경 교내 인권센터 박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주제로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을 안내했다.

/신하은 기자

성균관-중앙대, 비납계 빛 감지소자 개발

노이즈 억제 포토디텍터 구현

기존 연구대비 빠른 속도로 빛을 검출해낼 수 있는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기반 포토디텍터(빛 감지 소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페로브스카이트는 1839년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발견된 광물의 결정구조.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높은 전자 이동과 빛 흡수성으로 차세대 태양전지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전일 교수, 김규선 박사가 왕동환 중앙대학교 교수, 장웅

식 박사 공동연구팀과 함께 납을 사용하지 않은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박막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패시베이션 공정을 도입해 노이즈가 효과적으로 억제된 포토디텍터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패시베이션은 표면의 반응을 막기 위해 용매 등의 처리를 통해 피막을 형성하여 부동태화하는 공정이다.

최근 무기 감광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감광 소재로 조성에 따라 흡광도 조절이 가능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가 각광받고 있지만, 납으로

인한 유해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납계 페로브스카이트는 납 이온과 할로겐 이온 사이의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온들이 구조 내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한데, 이러한 특성은 외부 전하의 주입을 쉽게 해 포토디텍터 성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인 노이즈 발생을 야기해 왔다.

이에 공동연구팀은 납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인 주석 소재를 활용, 안정적으로 박막을 형성할 수 있는 패시베이션 기술을 적용해 양질의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신하은 기자

호서대, 베트남서 초·중학생 AI·SW 교육

SW기초교육의 3D pen 등 진행

호서대학교는 AI·SW중심대학사업단 주관으로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서 초등 및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9일부터 10일까지 해외 AI·SW 교육활동을 펼쳤다.

이번 해외 교육은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체결한 교육협력,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고 ▲SW기초교육의 3D pen ▲아두이노를 활용한

라인트레이서 교육 ▲구글 티처블 머신 활용 AI 체험학습 및 해커톤 경진대회를 운영했다.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구글 티처블 머신 활용 AI 체험학습 및 해커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2인 1조로 이뤄진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11학년 서유현, 김도균 그리고 11학년 구지현, 심보겸 두 팀이 수상했다.

/신하은 기자

(baby
bear
muu)

3 yrs old
love baking!
(forest bakery)
chef.



무우우 [muu]

놀이공원 기념품샵에서 발견된 아가곰 인형.
같은 이름을 가진,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긴 곰인형을 모두
무우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설날 통행료 무료… 부산시,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마련

민생경제 회복 위해 기업 자금 지원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유지
고속버스·철도 등 운행횟수 확대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부산시 8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 된다. 또 고속버스, 철도 등의 운행 횟수가 평시 대비 191회 증가되며, 성묘·봉안시설 운영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또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2개 선별진료소와 2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정상 운영한다.

부산시는 1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물가안정과 소비촉진,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유지, 취약계층 지원, 교통·수송 대책 등 민생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023년 진행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시상인연합회 등의 민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종합대책에는 유료도로 8개소 통행료 전면 무료, 정책금융 지원·소비촉진·물가안정 관리,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정상 운영, 명절 소외계층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단속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1.21~24, 4일간)동안 전면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광안·거가·부산항·을숙도대교 등 교량 4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터널 4곳 등 유료도로 총 8곳이다.

정책금융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

을 위해 중소기업 8615억원과 소상공인 9300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지류형 상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시는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42개 선별진료소와 2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정상 운영하고, 재택치료자 이송을 위한 응급환라인도 운영한다.

월세·관리비 장기체납 가구 등을 파악해 지역사회 내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명절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연휴 기간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501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끝으로, 연휴기간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과 급수상황실 운영 및 비상급수 대책 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확대

전남도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이 올해 대대적으로 늘어난다.

전남도는 주민 참여로 마을 청정자원을 관리·보존해 행복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올해 150억원을 투입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각별한 관심 속에 전남에서만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다.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정신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이미 선정된 2000개 마을에 신규로 1000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총 3000개 으뜸마을에서 인식전환·환경정화·경관개선 등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김천관광+ 어플’로 스탬프투어 즐기세요”

김천시는 11일부터 디지털 스마트 시대의 발전에 맞춰 ‘김천관광+’ 어플을 이용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김천관광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김천의 대표 관광명소 20개 장소에서 스탬프 8개 이상을 얻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연중 운영된다.

‘김천관광+’ 어플을 설치하고 투어장소를 방문해 해당 관광지에서 GPS 또는 QR코드 인식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어플에서 각 관광지의 설명, 길 안내 등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천(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하이브리드식 플로팅 해상공항 건설”

부산시, 국토부에 공식 제안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위한 의견
부채·매립식 혼합… 친환경적 방안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부채식과 매립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식 플로팅 해상공항(안)’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결과에서 매립식으로 건설하면 대수심(大水深) 해상 매립과 대규모 발파 등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에 공항 개항이 불가능하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이며, 또 해상 매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해법을 찾아달라는 환경단체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8월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며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공사기간, 건설방법(매립식, 부유식

등)에 얽매이지 않고 공기단축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이브리드식 플로팅 해상공항(안)은 시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위해 국내외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민간 합동 TF(이하 민간 합동TF)’에서 지난해 12월 제안한 내용이다.

부채식과 매립식이 혼합된 이 방안은 공기단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확장에 용이하며, 수심 등에도 영향이 없다.

시는 이번에 제안한 하이브리드식 플로팅 해상공항(안)이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민관합동 TF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덕도신공항이 조기 개항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김영환 기자 metrobusan3@

해남군, 저탄소 농업 선도 나선다

저탄소 농산물 생산, 전남도내 1위

해남군이 전국 최고 농업군으로서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농업 확산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위상을 새롭게 하고 있다.

해남군은 2021년 관내 347ha에서 3개 품목이 인증을 받는데 이어 1대1 농가 컨설팅을 통해 2022년에는 493ha 면적의 저탄소 인증으로 전남도내 1위의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해남군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쌀을 포함해 참다래, 단감, 대추, 배추 등 9개 품목을 141농가에서 생산해 전년 대비 품목과 면적 모두 크게 늘어났다.

저탄소 농업이란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 방법 및 기술로서, 농업 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해남군 탄소중립 및 저탄소 농업 확산 선도 위해 농업인 교육 모습.

/해남군



해남군 탄소중립 및 저탄소 농업 확산 선도 위해 농업인 교육 모습.

/해남군

해남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실시, 저탄소 농법을 활용한 벼 재배 기술 개발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 개발과 소비촉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기업체와 손잡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판매 전략은 젊은 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저탄소 인증 쌀 50톤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남해군,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선정

특별교부세 10억 수상

남해군이 지난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및 추진계획’은 2022년 7월 27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발표된 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통한 질

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는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구조개혁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힘쓴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남해군은 인접 지자체와 공동마케팅 추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불거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 확충

안동시는 관광거점도시 안동만의 특색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고품격 사계절 축제를 육성하여 불거리, 줄길거리, 막거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확충해 2023년 관광객 맞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안동 고유의 문화와 계절별 매력을 담은 사계절 축제로 봄에는 민속축제·봄꽃축제, 여름에는 안동 썸머페스티벌, 가을에는 국제 탈춤페스티벌 2023, 겨울에는 안동 눈빛 축제·안산 얼음축제를 진행해 사계절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생동감 있는 도시를



안동 탈춤축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께 열리던 민속축제를 분리하여 봄의 대표 축제에 개최하고, ‘안동 벚꽃축제’를 안동 강변 벚꽃길 일원에서 개최해 상춘객들의 발길을 모을 예정이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안동시, 자연환경 활용 ‘사계절 축제’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경남 밀양시는 경기침체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7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발급수수료 1년치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화려함 대신 친환경... 플라스틱·탄소 줄인 설 선물 줄이어

백화점, 명절선물 포장재 전환

신세계 패키지 84% 친환경 개선
롯데 ‘저탄소 한우 선물세트’ 선보
갤러리아 제과과정 탄소 ‘0’ 와인
현대 100% 재생용지 쇼핑백 교체

화려한 포장과 쇼핑백으로 무장했던 백화점 업계가 ‘고급스러움’ 대신 ‘친환경’을 골랐다. 팬데믹을 거치며 고객들의 관심이 빠르게 지속가능한 소비로 향하면서 백화점 업계도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1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백화점 업계가 다양한 요소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을 하고 있다.

백화점은 오래 전부터 고급 사치재를 판매하는 유통 채널로서, 고객에게 품격있고 부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포장 서비스와 쇼핑백이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품격을 더하고 내구성 등 품질 확보를 위해 고급 코팅지로 바꾸고 명절 선물세트 등 다양한



신세계백화점이 공개한 친환경 포장 박스. 재활용이 쉬운 크라프트지 등을 활용했다. 맨들거리는 코팅이 된 쇼핑백과 상자 등은 실질적인 재활용 효과가 거의 없어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신세계

기획 상품에 화려한 포장을 더 했다.

이번 설 백화점 업계는 앞다퉂 친환경적인 포장을 공개했다.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적인 과정을 거친 정육, 과일 선물세트를 공개했다. 지난해 백화점 업계는 친환경 포장이라고 홍보한 후 상자 칸막이와 트레이, 완충재 등을 플라스틱이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해 큰 비판을 받았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명절에는 지난해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전체 선물세트의 85%를 친환경 패키지로 개선해 제로웨이스트를 노리고 있다.

손영식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친환경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한 만큼 고객이 직접 참여해 환경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며 선구적인 ESG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5월 자체 친환경 패키지 기준을 마련했다. ‘플라스틱 제로, 100% 재활용’을 목표로 만든 기준으로 재생소재 사용 여부와 재활용 가능율을 조합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과 같이 5등급으로 구분한다. 향후 모든 장르에 친환경 패키지를 도입해 ‘제로 웨이스트 백화점’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에 업계 최초로 일반 한우보다 탄소 배출량이 65% 적은 ‘저탄소 한우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소를 대표로 하는 육류는 가장 인기있는 명절 선물세트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어른 소 한 마리가 1년간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600kg, 필요로 하는 물은 1만6730㎥에 달한다. 포장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리사이클 소재로 제작한 보랭가방에 넣어 판매하며, 플라스틱 대신 종이 펄프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부자재와 장식을 줄인 친환경 포장도 마련했다. 친환경 포장은 축산 선물세트 외 청과, 수산, 견과에까지 적용했다.

갤러리아도 이번 설 친환경·저탄소

인증, 비건 선물세트 등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가비소치’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인다. 특히 ‘클린 이팅(Clean Eating) 와인’으로 불리는 친환경 와인세트가 눈길을 끈다. 포도재배부터 양조 과정까지 친환경으로 만든 와인으로 탄소 배출 0% 인증, 동물성 재료 미사용, 오가니 인증 등을 받은 와인들로 구성된 선물 세트다.

현대백화점은 2021년 가장 먼저 외벽 현수막을 재활용한 업사이클 패션 가방을 선보인 후 지난해 2월 기준 고급 용지로 만든 쇼핑백 사용을 중단하고, 100% 재생용지로 제작한 친환경 쇼핑백으로 교체했다. 현대백화점은 친환경 쇼핑백을 통해 기존 쇼핑백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 약 1만3200그루(약 2000여톤)를 보호하고, 약 3298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설 명절 당시 과대포장을 단속해 총 1만2049개 제품을 단속했지만, 55건만을 적발해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11번가 “설 선물, 아마존서 준비하세요”

15일 까지 글로벌스토어 기획전
7% 쿠폰 발급 ‘아마존워크’ 진행

11번가가 15일까지 ‘아마존 글로벌스토어’ 설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11번가 MD가 엄선한 특가 상품을 판매하는 ‘설날이라 준비했설’ 행사를 중심으로 ▲센스만점 아마존 명절 기프트 ▲집콕부터 여행까지 연휴를 부탁해 ▲주방 꿀템으로 명절준비 똑딱! 등 기획전으로 설 선물로 추천할만한 해외지구 상품들을 모았다.

계묘년을 겨냥한 상품도 모았다. ‘3D 도자기 토끼 피규어 장식 머그잔’, ‘토끼 모형 스프레드’ 등 토끼와 관련한 상품을 마련했다.



11번가는 설 선물 기획전과 함께 17일까지 ‘아마존워크’도 진행한다. 7% 할인 쿠폰, 5% 할인쿠폰 등을 매일 발급한다.

새해 맞이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특집 라이브 방송도 실시하며 유럽, 일본 등에서 배송되는 11번가 해외지구 카테고리에서도 오는 15일까지 인기 상품

100여개를 최대 7% 할인 판매한다.

오쏘몰 이윤 드링크, 쏘니서치 영양제, 일리 캡슐커피 등 대표 상품과 유치원 졸업식 꽃다발로 인기인 ‘캐릭터 인형 꽃다발’, 하와이 기념품으로 유명한 ‘베스앤바디웍스 바디로션’ 등을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밀키트 2개 사고 50% 할인 받으세요”

이마트24, 이달 말까지 행사

이마트24는 31일까지 ‘이달의 밀키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달의 밀키트’ 상품을 2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의 밀키트’ 상품으로는 ▲소고기 비빔밥 ▲제주흑돼지묵은지찌름 ▲육수가득소불고기전골 ▲대한곰창곰창전골 등 4종의 상품을 선정했다.

더불어 이마트24는 오는 31일까지 모바일앱 내 ‘예약픽업’을 통해 밀키트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10명을 추첨해 손금토끼 1돈(3.75g)을 증정한다. 행사 참여 희망 고객은 ‘예약픽업’을 통해 전국 매장에서 밀키트 상품을 수령 후, 모바일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성수동에 위치한 이마트24 매장에서 고객이 밀키트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마트24

이번 행사는 고물가 시대에 외식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는 ‘집밥족’을 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마트24는 현재 밀키트 상품을 총 45종 운영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이달의 밀키트’를 매월 선정하고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집밥족을 잡기 위한 밀키트 라인업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정관장, 온라인몰 매출 56% 2030세대

KGC인삼공사, 젊은세대 공략 강화

국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온라인 판매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GC인삼공사가 온라인 채널을 강화해 젊은 세대를 공략한다.

2019년 43.8%였던 온라인 채널 비중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6.9%로 확대된 이후 지난해에는 63.1%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2030세대의 건강관리가 일상화되며 비대면 쇼핑에 익숙한 2030세대가 온라인을 통해 건기식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 온라인몰 ‘정관장몰’도 2030세

대의 매출이 늘고 있다. 2018년 40.5%였던 2030세대의 매출 비중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며 2022년 기준 56.2%까지 올라섰다. 2030세대가 중장년층보다 홍삼을 더 많이 찾은 것이다.

정관장의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인기다. 정관장의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2016년 서비스 시작 후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한 해만 카카오 기준 약 77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26% 성장했다. 이 중 2030세대의 구매 비중은 50%가 넘는다. 판매하는 제품수도 160여종에 달한다.

KGC인삼공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정관장몰’에서 ‘새해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파리바게뜨 ‘우리쌀 설 선물세트’ 출시

파리바게뜨가 ‘우리쌀 설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해 농업의 미래성장을 지원하는 SPC그룹 ‘행복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신종종인 가루쌀을 원료로 사용했다.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빵이 가루로 만들 수 있어 우리 쌀의 새로운 판로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출시한 제품은 ▲곱게 빻은 국산 쌀로 만든 부드러운 케이크에 고희 유자의 달콤한 향과 맛이 어우러진 ‘우리쌀 유자 롤케이크’ ▲곱게 빻은 국산 쌀과 땅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견과와 고소함이 살아 있는 ‘우리쌀 견과 파운드’ 등이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 킷더허들과 헬스케어 협력 MOU

MZ타겟 상품·서비스 판로 확장

현대백화점이 11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킷더허들과 헬스케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재훈 현대백화점 미래사업부 사업부장(상무)과 김태양 킷더허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킷더허들은 현직 약사인 김태양 대표가 2018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전문 약사의 상담 등을 기반으로 개발한 영양제 구독 서비스 ‘핏타민’을 비롯해 스포츠·운동 카테고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된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누적 투

자액 146억원을 달성했다.

현대백화점과 킷더허들은 각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해 헬스케어 상품 및 서비스 판로를 확장하고,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한 마케팅 효과 제고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으로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특화 체험형 스토어를 오픈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에게 맞는 성분 등을 파악하고 건강 관련 식품, 보조제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체험하는 신개념 매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스트리트 아트 입은 ‘시바스 리갈 길’… MZ 취저 팝업 오픈

〈취향저격〉

그래픽 디자이너 레어버스의 아트웍
브랜드 헤리티지, 프로그램 경험
미디어아트 접목한 라이브 포토존

페르노리카코리아의 글로벌 위스키 ‘시바스(CHIVAS)’가 국내 스트리트 아트와 감성을 담은 체험형 팝업스토어 ‘CHIVAS REGAL GIL(시바스 리갈 길)’을 내달 26일까지 압구정로데오에서 운영한다.

11일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미구엘 파스칼 마케팅 전무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음악, 패션, 그리고 스트리트 문화에 열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전달하고 싶다”며 “팝업스토어와 시바스의 아시아 브랜드 앰배서더인 ‘리사’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시바스가 좀 더 녹아 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시바스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한국 시장의 투자를 지속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이사(왼쪽)와 미구엘 파스칼 마케팅 전무가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문을 여는 팝업 스토어 ‘시바스 리갈 길’에서 모델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시바스 리갈의 정체성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팝업스토어는 ‘나의 취향’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을 주제로 기획됐으며 이에 걸맞게 ‘네 갈 길(Find your way)’을 부제로 선정했다.

‘CHIVAS REGAL GIL(시바스 리갈 길)’의 외관은 독특한 색감과 감성으로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 ‘레어버스(RAREBIRTH)’의 아트웍으로 꾸몄다. 시바스의 대표 제품인 시바스 15, 18을 상징하는 골드, 핑크, 블루 컬러 조명을 활용했다.

총 3층으로 구성된 팝업스토어 내부

에서는 시바스만의 브랜드 헤리티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1층에 들어서면 모든 시바스의 블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엄선된 시바스의 칵테일과 MZ세대 성지로 주목받는 ‘드렁큰타이거바’, 뉴트로스타일의 아메리칸 피자 전문점 ‘클랩피자’, 패스트 앤 프리미엄 수제버거 브랜드 ‘다운타운’이 입점해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2층은 시바스의 아시아 브랜드 앰배서더 리사가 직접 참여한 ‘시바스18’ 한정판 및 생동감 있는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라이브 포토존으로 꾸몄다. 이번 한정판 18년 바틀은 음악과 패션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감각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리사에게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바틀 라벨에는 대표 컬러 블루를 베이스로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별 모양 로고와 시그니처가 핑크색 네온 컬러로 추가되어 아이코닉한 느낌이 돋보인다. 바틀 외부에는 18K 골드 도금이 된 시바스의 심볼과 리사를 상징하는 별 모양의 펜던트가 탈부착 가능한

형태로 장식됐다. 2층 한 칸에는 펜던트를 이용한 가족공예 체험존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볼 수 있다. 가족팔찌와 컵받침을 제작한다.

3층은 대표 블렌드(시바스12, 시바스XV, 시바스18)를 표현한 비트에 본인의 색깔을 더한 비트를 만들어볼 수 있는 ‘비트 메이킹 부스’와 라이브 드로잉 존으로 꾸몄다.

이날 아티스트 ‘필독’은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시바스의 블렌디드 위스키 미학을 표현하는 드로잉쇼를 진행했다.

한편, 시바스 리갈 길은 법정 음주 가능 연령이라면 누구나 예약없이 방문 가능하며, 네이버를 통해 예약할 경우 우선 입장할 수 있다. 특히, 힙합 공연과 댄스 워크샵, 시바스 브랜드 칵테일 클래스 참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예약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시바스 팝업’, ‘시바스 리갈길’, ‘CHIVAS REGAL GIL’을 검색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바이오, 메가 플랜트 세운다… 2030년까지 3조 투자

36만 t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
인수-신규 건설, 2개의 전략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0년까지 3조원을 투자, 3개 메가 플랜트를 세우고 국내 36만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출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생산을 시작해 2034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대표는 10일(현지시간)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아시아태평양 트랙에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서의 본격적인 진출을 알리고 이와 같은 10년의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수와 신규 건설이라는 두 개의 전략으로 CDMO 시장에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아시아태평양 트랙에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서의 본격적인 진출을 알리고 10년의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30년까지 총 30억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3개의 메가 플랜트, 총 36만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국내에 갖춘다는 계획이다. 1개의 메가 플랜트 당 12만리터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며, 임상 물

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및 완제 의약품 시설도 추가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 첫번째 메가 플랜트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준공, 2026년 하반기 GMP 승인, 2027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034년 3개의 메가 플랜트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출액 30억 달러, 영업이익률 35%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신규 치료제 발굴 기여를 위해 메가 플랜트 단지를 롯데바이오 캠퍼스로 조성하여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 벤처들이 시설을 이용하며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바이오 벤처 계획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콧의 미국 시러큐스 공장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8개월만에 CDMO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시러큐스 공장을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북미 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ADC 위탁 생산 서비스 제공 ▲임상 물질 생산 배양 시설 및 완제 의약품 (DP) 시설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GC녹십자웰빙

프로비던스 덴티원 유산균

GC녹십자웰빙이 아이들의 입속 세균 관리에 도움을 주는 키즈용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 ‘프로비던스 덴티원 유산균’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프로비던스 덴티원 유산균’은 자사의 유산균 전문 연구소의 노하우로 배합된 구강 특허 유산균 2종(MG505, MG310)이 함유된 제품이다. 동물 실험 연구 결과, 지난 2018년에는 ‘MG505’의 충치 원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99.8%로 확인됐으며 지난 2021년에는 ‘MG310’의 치주염 원인균에 대한 활성 억제 효과가 80%로 확인됐다. /이세경 기자

CJ웰케아

60여 종 건강 선물세트 출시

CJ웰케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흑삼 선물세트 신제품 등 60여 종의 건강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에 새롭게 선보인 신제품은 한뿌리 ‘흑삼 진액 제로’ ‘흑녹천’ ‘흑삼 켄스틱’ 3종이다. 세 제품 모두 CJ웰케아의 독자적 기술력이 적용된 ‘구증구포(아홉번 찌고 말린) 흑삼’을 담았다. ‘구증구포 흑삼’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증가시킨 제품으로 홍삼 대비 흡수율을 최대 120% 높였으며 흡수시간도 1시간 단축했다.

‘흑삼 진액 제로’는 제로 칼로리 음료 시장 확대에 맞춘 무설탕 흑삼 음료 제품으로 감미료, 보습료, 착색료를 넣지 않고도 건강과 맛을 챙겼다. ‘흑녹천’은 뉴질랜드 최상위 등급인 SAT 등급 녹용과 영지버섯, 동충하초 등 5가지 버섯을 함유했다. /신원선 기자

“설연휴 서울신라호텔서 와인파티 즐겨요” JW중외제약 ‘가드렛’, 당화혈색소 개선

‘홀리데이 와이너리’ 이벤트

서울신라호텔이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21일부터 23일까지 대연회장 다이내스티홀에서 와인 파티 ‘홀리데이 와이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저녁 7시부터 두시간 진행하며 7시 30분부터는 1시간 동안 재즈 공연도 펼쳐진다.

이번 이벤트가 펼쳐지는 대연회장은 약 1130㎡(340평) 공간으로, 만찬 테이블과 화려한 샹들리에,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과 촛불이 마치 영화 속 만찬장을 연상하도록 꾸며진다.

라이브 재즈 공연은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재즈 기타, 드럼, 색소폰, 트럼펫으로 구성된 6인조 밴드다. 대중에게 사

랑받는 재즈 음악으로 연주곡을 엄선해 다이내스티 홀을 가득 메울 예정이다.

홀리데이 와이너리에는 10여종의 와인과 마리아주 안주가 마련된다. 마리아주 안주는 서울신라호텔의 대표 메뉴로 구성된 치즈 플레이트, 칵테일 새우, 안심 찹스테이크, 연어 구이, 홈메이드 소시지 등과 함께 달콤한 디저트까지 제공된다.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토끼해를 맞이해 토끼 라벨로 유명한 ‘젠틀 레빗’의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2종을 준비했다. /김서현 기자 seoh@



국제 학술지 온라인판 게재

기존 당뇨병 치료제(DPP-4 억제제)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환자에게 ‘가드렛’이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제시됐다.

JW중외제약은 당뇨병 치료제 가드렛의 당화혈색소(HbA1c) 개선 우수성을 입증한 관찰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 학술지 ‘당뇨병 치료’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11일 밝혔다.

DPP-4억제제인 가드렛은 아나글립틴이 주성분인 2형 당뇨병 치료제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하는 1형 당뇨병과 달리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만, 양이 적거나 저항성 때

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김성래 교수(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김상용 교수(조선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구팀은 가드렛을 제외한 DPP-4 억제제를 8주 이상 단독 또는 병용 복용 중인 2형 당뇨병 환자 중 당화혈색소 수치가 7.0% 이상인 1119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연구를 진행했다.

가드렛 100mg으로 전환 복용 12주차와 24주차에 당화혈색소를 측정한 결과 12주차에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복용 전보다 0.4% 낮아졌고 24주차에는 0.4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Enjoy Your Life



유럽제품 을 안방에서 즐기다

COCOSBAY

NAVER

코코스베이





에어부산-BNK부산은행,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에어부산이 BNK부산은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오후 부산은행 본점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마호진 영업본부장(가운데 우측)과 정영준 부산은행 객객지원그룹장(가운데 좌측)을 비롯한 양사 직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어부산

에이수스 코리아 신임 지사장에 책 황 선임

에이수스는 한국 시스템 비즈니스 그룹에 책 황 신임 지사장(사진)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지사장은 2011년 사내 변호사로 에이수스에 입사, 대만 본사 시스템 비즈니스 그룹 영업부서와 홍콩지사 기업성과관리장 등을 역임했다.



/김재웅 기자 juk@



현대글로벌비스, 인천에 중고차 경매센터 열어

현대글로벌비스는 인천 서구 가좌동에 ‘오토벨 인천센터’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총 1만7851㎡(5400평) 규모로 약 600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300석의 경매장, 차량 정밀 점검 시스템 등을 갖췄다.

/현대글로벌비스

인사

◆법무부 ◇3급 전보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장 이영면 ◇4급 승진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임재홍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정윤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세국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정경진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임합격 ◇4급 전보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박종균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윤일중 △법무부 소년보호과 배성희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충섭 △부산소년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승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동민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양병곤 △광주소년원장 신원식 △춘천소년원장 오상섭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배종상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유정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전상호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조동기 △청주보호관찰소장 이용호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기선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박해영 △제주보호관찰소장 김대요

부음

▲주영임씨 별세, 전근식(한일시멘트 대표이사 사장)·정식씨 모친상, 정연미·오미희씨 시모상, 윤달섭씨 빙모상, 전영준·전영우·전슬기씨 조모상 = 10일 오후 4시9분 별세,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 장지 충북 영동군 용화면 안정리 선영. 031-787-1500
▲유상호씨 별세, 최인호(쌍용C&E 대외협력팀장)씨 장인상 = 11일 오전,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30분, 장지 동두천 크리스찬골드파크. 031-951-7444

현대차그룹, 美 ‘굿디자인 어워드’서 상 싹쓸이

현대차 5개, 기아 4개 등
총 11개 부문서 수상 영예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총 11개 부문에서 미국 ‘2022 굿디자인 어워드’ 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터가 포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난 1950년 시작해 2022년 72회째를 맞은 디자인 대회다.

‘2022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현대차는 5개, 기아는 4개, 제네시스는 2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선 현대차는 운송 디자인 부문



현대차 세븐(SEVEN) 콘셉트.

에서 ▲트레일러 드론 ▲세븐(SEVEN) 콘셉트, 로보틱스 디자인 부문에서 ▲PnD(Plug & Drive) 모빌리티 ▲L7 ▶모베드(MobED) 등 5개 제품의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운송 디자인 부문에서 ▲니로 ▲EV9 콘셉트 ▲마젠타(Mag

enta)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기차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총 4개 분야에 선정됐다. 이 가운데 친환경 SUV ‘니로’는 주최측으로부터 “독창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차량”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기업 최초 ‘테라 카르타 실’ 수상

英 대현장 마그나 카르타 환경판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 기업 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 기업 최초로 영국 왕실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테라 카르타 실’을 수상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2021년 추진한 테라 카르타는 인류의 자유를 상징하는 영국 대현장 마그나 카르타의 환경판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로

드맵을 제시한 기업들에 테라 카르타 실을 수여한다. 올해에는 애플, GSK, 사노피 등 19개 기업이 수상 명단에 포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50년까지 사업장 및 공급망 탄소중립을 달성할 방침이다. 먼저 저탄소 및 에너지 고효율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정별 상세 에너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열원을 변경하는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공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

하는 FEMS(공장 에너지 경영 시스템)를 구축한 바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 최초로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이니셔티브인 ‘RE100’에 가입했다. RE100달성을 위해 사업장 전력 에너지를 효율화해 사용량 절감을 우선하는 동시에 기존 및 신규 공장에 태양광 설비 등 자가발전을 설비를 확대하고 외부 발전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장 업무 차량도 친환경(전기, 수소차)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발 더 나아가 2050년까지 공급망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기타 간접 배출(Scope 3)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망 부문 달성을 위해 주요 공급망과의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다양한 감축 과제를 지속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SMI 내 ‘헬스케어 시스템 태스크포스’에서 유일한 CDMO 기업이자 공급망 분야 의장을 맡아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박형근 코오롱 브랜드커뮤니케이션실장 상무(왼쪽),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오롱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7억 기부

코오롱그룹이 연말 이웃 돕기에 동참했다.

코오롱은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3나눔 캠페인’에 성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2008년부터 기부를 이어왔다. 성금 중 일부는 ‘셰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도시놀이터 개선 사업’에 지정 기탁,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오롱 박형근 상무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희망나눔 참여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시몬스

시흥에 ‘시몬스 맨션’

시몬스가 경기 시흥 은행동에 ‘시몬스 맨션 시흥점’ (사진)을 열었다.

11일 시몬스에 따르면 시몬스 맨션 시흥점은 시흥 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시흥·안산·부천 등 경기 남부 지역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서울시 구로구 항동 고객의 수요까지 폭넓게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시흥의 신도심인 은계지구 중심에 자리잡은 매장은 인근에 대형 주거 단지가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할 뿐 아니라 자녀를 둔 가족 단위 고객을 비롯해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방문객도 기대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충청지역 中企人 신년인사회’ 개최

충청지역 각계 주요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1일 오후 대전 호텔ICC에서 ‘2023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지방자치단체, 정지권, 중소기업계 등 각계 주요인사 45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연말 납품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후 대전 호텔ICC에서 ‘2023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중기중앙회

단가 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했듯이 지자체와 국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제

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없애달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표현의 자유 논란



윤 휘 중 의

잠시 쉼표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의원회관에 전시 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 80여점을 국회사무처가 전격 철거한 일이 발생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 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 이 주관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전시를 주관한 의원 측은 “국 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 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는 민 주당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며 맞반었다.

지난해 10월경, ‘윤석열차’를 놓고 한바 탕 논란이 됐던 표현의 자유가 다시 관심 을 끌고 있다. 표현의 자유란 헌법에 정해 진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 견을 억압이나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 다’고 명시돼 있다. UN도 ‘모든 사람은 의 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 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 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며 표현 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표현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 는 건 아니다. 헌법 21조 4항에는 표현의자 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 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국가안 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이를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표현에 자유가 보장돼야한 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시즘이나 독재, 각 종 차별, 인신매매, 국가전복 등을 주장하 는 표현에도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그 표현의 자유를 누가 판단할 것 이냐에 대한 문제는 있다. 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주권 을 갖고 있는 주체, 즉 국민이 해야 한다. 그 국민이 누구냐는 게 논란거리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전시 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림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했느냐를 봐야 한다. 국민 의힘 주장처럼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해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 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 다. 오히려 ‘거대 야당이 재야단체 뒤에 숨 어서 전시 장소를 국회로 택한 것이 문제’ 라고 본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곳에서 전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 리 정치의 심장부인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야당 진영이 대통령을 풍자 하는 그림을 전시했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 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 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에블린 비트리스 홀이 18세기 계몽 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사상을 요약하며 ‘볼테르의 친구들’에서 쓴 것처럼 “나는 당 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 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한 게 어떤 의미인 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정지경채무장 yhj@metroseoul.co.kr

선물이란, 포장이란



김지수첩

김 서 현
(유통&라이프부)

선물이란,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물건이다. 받으면 기쁜 게 선물이지만 검은 비닐 봉지에 담아 주면 주는 이의 성 의와 의도가 의심받는다. 허접한 포장에 선물이 되려 망가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선물을 보호하고 받는 이에게 어떤 긍정적 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포장에도 정성을 기울인다.

문제는 포장에 너무 큰 정성을 쏟으면 받는 사람이야 기쁠지 몰라도 환경에는 아 니라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맨들거리는 코팅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일만쓰레기 로 버려야 한다. 롯데마트가 과감히 매주

발행하던 종이전단 운영을 중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9월 추석 명절, 백화점 선물세트 매대는 친환경을 홍보한 것이 무색했다. 각고의 노력으로 도입한 다회용 보냉백 등 이 무색하게 친환경적인 종이 완충재와 상 자를 이용해도 과일과 고기는 하나하나 비 닐 포장과 필름지에 싸여있었다.

그 결과 한동안 백화점업계에는 ‘그린 위상’ 논란이 일어났다. 백화점 업체들은 제각각 여러 전문가 그룹과 연구를 이어가 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 상 품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선물 포장에 해내 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장 모두 바꾸 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리본을 풀며 기대 하는 얼굴을 보려고 생각없이 썼던 포장지 와 리본끈이 기후 위기를 앞당기고 있었다

니! 알고보니 화가 나서 공격하는 글을 잔 뜰 쓰려 했다.

그런데, 문득 최고급 꽃감 30개를 포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홀로 생각하 는 데, 플라스틱 상자에 알알이 담은 것 외엔 도통 떠오르지 않는다. 도리어 문득 이렇 게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환경을 망가 뜨리는 일에 익숙했고, 다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구나 싶어 반성하게 된다.

다양한 기사와 전문가들은 유통업계의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선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특정한 물건을 주 기 보다는 전자 상품권을 주는 식으로 구 태여 선물 포장에 필요없도록 바뀌어나가야 한다 말한다. 기업에서 새로운 대안을 연 구해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걸릴테니 그레 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얼마나 기다리 면 될까?

/seoh@

오늘의 운세	1월 12일 (음 12월 21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 48년생 남의 이목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 60년생 일을 하던 중에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바로 중지. 72년생 벗어나니 새로운 관 심거리가 생긴다. 84년생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피자.	
 소	37년생 당장은 성과가 없어도 시작하면 좋다. 49년생 작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노 려라. 61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피해라. 73년생 들떠있던 거품은 사라 지고 부담만 남는다. 85년생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긴다.	
 호랑이	38년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루. 50년생 결과를 재촉하지 말고 과정을 살피는 것 이 중요. 62년생 알아도 모르는 척 지나가기. 74년생 멀리서 구하지 말고 가까운 곳 에서 찾아라. 86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니 행운이 가까이.	
 토끼	39년생 시간이 돈이니 시간활용을 잘 하기. 51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 게 조심히. 63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간다. 75년생 상대를 배려하면 내가 존 중 받는다. 87년생 지난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인식.	
 양	40년생 기대만큼 큰 성과가 있다. 52년생 천하를 다 얻은 듯 즐거운 하루. 64년생 심한 운동으로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다. 76년생 표정관리를 잘해야 적을 만들지 않는다. 88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오니 일을 시작하자.	
 바람	41년생 노력이 발휘되고 목표가 달성되는 날. 53년생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니 배우 자에게 더 신경 쓰자. 65년생 심 내 욕은 채움이 해소. 77년생 받기보다 베푸는 하루 가 된다. 89년생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게 마련인데.	
 말	42년생 주변의 박씨가 도움을 준다. 54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66년생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자. 78년생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내일을 위해 저 축을. 90년생 신에게 무조건 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양	43년생 재혼 자에게 먼저 칭찬하고 이해하라. 55년생 비가와도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우산은 필요 없다. 67년생 마음만 바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79년생 선배에 게 도움을 구하면 해결책이 보임. 91년생 주변이 바쁘니 외출자제.	
 원숭이	44년생 상대가 못마땅해도 오늘은 너그럽이 넘어가자. 56년생 오후 7시지나면서 차 량사고에 주의해야. 68년생 인수 운이 있으니 매매거래가 순조롭다. 80년생 원하던 영업문서가 실제로 계약된다. 92년생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될 수.	
 닭	45년생 지나친 자존감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57년생 새로운 만남은 많은 것을 가 저온다. 69년생 하늘도 맑고 푸르니 여행을 떠나보자. 81년생 어차피 할 일이라면 기 썬 마음으로. 93년생 논쟁보다는 타협이 해결책이니 언쟁하지 마라.	
 개	46년생 겉모양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마라. 58년생 자신의 능력으로 못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70년생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망신수가 있다. 82년생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만나는 것이 좋다. 94년생 음주나 원행을 금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돼지	47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자녀들의 본보기가 된다. 59년생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라. 71년생 신규 투자할 곳이 나타난다. 83년생 남에게 이해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95년생 산다는 것이 축복일까 건강하다면 최고의 축복으로.	

김상회의四季

재복의 크기



필자의 지인인 P씨는 근 이십년 전 상담을 온 후 계속 인연을 맺어왔 다. 그는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재운에는 증권투자가 맞 지 않음을 처음 상담 시부터 주의를 주었었다. 그의 재물 방향은 토 (土)로써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거부동산에 재물을 묻어두면 분명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고. 60년 음력5월생 경자년 신사월 기미일(庚子 辛巳 己未)사주로 전형적 습니오옥(濕泥汚玉;참견이 심하여 손해발 생)이다. 月の사중 경금(己中庚金)이 투간되어 식상이 왕하니 뜯구름 쫓을 수가 있어서 재물이 흩어진다.

주식은 편재성으로 과하면 불급이라 P씨의 사주로 보아서는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몇년전 필자를 찾아와서는 아파트를 중부세 폭탄 으로 인해 도저히 부담이 돼서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참은 김에 조금만 견뎌보라고 말렸었다. 무엇보다 P씨에게는 주식투자가 맞지 않고 그래도 부동산 유지는 최소한 유지한 보람을 있게 할 것이라 고 말이다. 그러나 P씨는 급기야 처분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팔고 나 자마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다들 아시다시피 가파르게 올랐다.

팔고남은 돈으로 한 주식투자는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남은 돈 은 날아간 셈이다. 2023년 1월 현재는 아파트시세가 없다 해도 P씨가 소 유했던 아파트는 대형아파트이기에 월급으로 중부세 내는 것이 너무 부 담이 되어 양도세 중과 일시 배제 시책이 나오자 팔지 않을 수가 없었다 며 속상해 한다. 무엇보다 당시 개미투자자들의 엄청난 주식투자 열풍 에 금융계에 있는 자신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재물문의 정성은 자 기 사주를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에게 허용된 재물의 방향을 무 시하면 습니오옥되어 물처럼 흘러버리거나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는 힘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토쿠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5	6		
	8				2
			3		8
1		7			4
	4			5	8
6					7
			5		
		3	8		
	5		2	9	
					3

				7	5	4
						9
		1		8		
			4			
				3	9	
1		5		6		7
8				5		2
7						4
	1			4	7	

정답

8	2	6	7	9	1	5	4
9	1	2	4	8	3	6	7
9	6	4	3	5	1	2	8
2	7	1	9	4	8	6	5
8	9	5	1	6	2	7	3
6	4	3	8	9	2	5	1
4	8	2	5	6	9	1	3
2	9	9	2	1	4	6	8
1	6	8	9	8	9	2	4

8	6	2	4	3	9	1	5
3	9	1	9	8	6	2	4
4	9	2	1	5	8	6	3
2	3	4	6	9	8	9	2
1	2	6	3	2	9	4	8
9	8	9	2	1	4	3	6
2	2	3	8	6	9	1	4
6	1	8	9	4	3	2	9
9	4	9	2	2	1	8	6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조선·철강업계 “수출확대 위해 인력·금융난 해소 시급”

**무협, 조선·철강업계 긴급대책회의
정만기 부회장 “中 경제 회복시
하반기 수출 빠르게 안정 찾을 것”
철강, 무역보험한도 확대 등 요청**

최악의 무역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 회복시 하반기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조선·철강업계 수출 확대를 위해선 인력·금융난 해소와 함께 대미 수출 쿼터 소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2회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조선·철강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친 베트남과 인도 사례를 감안하는 경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 중인 중국도 1월 춘절(음력 1월1일) 전후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후 3~4월이면 급감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골드만삭스 등 많은 기관들 전망처럼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금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회복된다면, 전년 대비 4% 감소가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10일 조선·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무협

전망되는 우리 수출도 금년 하반기 이후엔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조선과 철강은 중국과 보완 관계라기보다는 경쟁관계에 있어 중국의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로 수출 확대를 위한 특단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조선산업의 경우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의 58%, 친환경 선박 발주량의 50%를 수주하는 등 대규모 수주로 인해 올해 수출은

20% 이상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조선업 종사자수가 2014년 20만명 수준에서 2022년 7월경 9만 명 수준으로 54% 가량 감소하며 인력난에 직면한 상태다.

정 부회장은 “기존 정부 대책과 더불어 퇴직 인력 재취업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금융 기관과 보증 기관의 선박 금융과 보증한도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우리의 철강 대미 수출은 263만 톤의 수출 쿼터 중 분기별로 30%를 채워야 하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쿼터 잔여량의 다음 분기로의 이월이 허용되지 않아 미 소진 물

량을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쿼터 잔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소 철강 업체들에게 쿼터량의 일부를 배정하는 등 쿼터량의 100% 소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분기별 미 소진량 이월이 허용되도록 미국과의 협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부회장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 대 유럽연합 수출이 5.8% 상당의 관세 부과 효과로 인해 약 12.3% 수출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우리도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을 무상 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최근 수출 회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권봉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장은 회의에서 “외국 인력 도입 확대와 E7비자(조선업 관련 특별활동 비자) 발급 신속화 등 지원책을 정부가 최근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부장은 신규 건조 척수 증가에 따른 조선업계 자금 수요가 대폭 증

가한 반면, 원자재 가격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전하며 “선수금 환급보증(RG)과 선물환 매입을 위한 은행별 여신 한도 확대와 특별 한도 제공 등 추가적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세제 혜택이나 고용 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지침 상 E7비자를 보유한 외국 인력에게 GNI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70% 미만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최근 수요 침체와 신흥국의 철강 생산 역량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에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또 영세 업체 대상 거래 시 무역 보험 한도가 수출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무역 보험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보, 본부조직 축소 등 조직 개편 단행

11부 4실2추진단→10부 4실
미래혁신사업 전략부서 신설

기술보증기금이 조직을 개편해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기보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맞춰 본부조직을 줄이고 미래혁신사업 수행 전략부서를 신설하는 등 ‘2023년도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본부조직을 ‘11부 4실 2추진단’에서 ‘10부 4실’로 개편했다.

특히, 본부부서를 ▲전략기획 ▲경영관리 ▲기술금융 ▲혁신성장 등 4개 부문제로 전환해 부문장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사업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시너지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사업 조직으로 운영됐던 탄소중립추진단, 매출채권팩토링추진단을 정규조직에 흡수해 내실화하고, 기보의 미래혁신사업 수행을 위한 전략조직으로 녹색콘텐츠 금융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업조직은 부산지역본부와 경남을 산지역본부를 통합해 부·울·경 광역관

리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9개 지역본부를 8개 지역본부로 개편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하기로 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 등 세가지 원칙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기보의 미래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집중함으로써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복합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설 연휴 무단폐수·미세먼지 배출 집중단속

환경부-지자체, 5600곳 특별단속
적발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설 연휴기간 폐수, 미세먼지 배출업체 전국 5600여 개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1~27일 특별 감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환경부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단속에 나선다.

지방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에 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 현장도 확인한다.

설 연휴 기간인 21~24일은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지방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25~27일은 단속 기간 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128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승강기안전공단, 명절 승강기 특별점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설 명절을 맞아 KTX 역사 승강기에 대해 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전국 23개 KTX 주요 역사에 설치된 승강기 134대다.

주요 점검사항은 에스컬레이터는 ▲손잡이 작동 상태 ▲권상기 및 구동체인 설치 상태 ▲상하부 비상정지장치 작동 상태 등이며, 엘리베이터는 ▲문

닫힘 안전장치 작동 상태 ▲비상통화장치 작동 상태 ▲안전수칙 부착 상태 ▲안전이용에 대한 안내방송 송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승강기안전공단 이용표 이사장은 “승강기 이용량이 집중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승강기 이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KTX 역사 승강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확진 후 호텔에서 붙잡힌 중국인 “공항장애 약 가지러 이동” 도주 부인 /사진 뉴스스
▲ 검찰, 경찰청 이틀째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보강수사

▲ ‘2215억 횡령’ 오스템 전 재무팀장, 1심 징역 35년
▲ 서훈 “월북몰이 할 이유 없어” vs 檢 “책임 전가한 것”… 보석심문 설전



▲ 이태원 참사 유가족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 뉴스스
▲ 간호법, 8개월째 계류… “정쟁 멈추고 즉각 제정 해달라”



[라이프]
화려함 대신 친환경
플라스틱 줄인
설 선물 줄줄이
나



Life

[라이프]
스트리트 아트 입은
시바스 리갈 길
MZ취향저격
L2



서울시의회, SH 혁신안 강화·시립병원 인력충원 등 건의

시장·처리요구사항 등 총 34건 접수
스마트 헬스케어 효율성 검토해야
시립병원 인력 미달 대책 마련 주문

서울시의회가 SH공사 5대 혁신안 실효성 강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보다 효율적인 프로젝트에 예산 투자, 서울시립병원 인력 충원을 서울시

에 요구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수감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총 34건이 접수돼 23건에 대한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나머지 9건은 추진하고 있고 1건은 검토 중이며, 1건은 미반영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의회는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SH공사의 5대 혁신안에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 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작년 9월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웅 의원의 시장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과' 내용이 포함됐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벌금은 법률로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시정하라고 서울시에 지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업무 관련 임직원의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2021년 4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 개정에 의해 현재 SH공사에서는 직원과 그 가족이 공사 관여 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조사, 부당이익 취득이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수사 의뢰해 법률에 따른 벌금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기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베란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536억원이 허투루 쓰였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8년간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 사용된 예산과 안심위치 사업으로 스마트시계를 단시간에 나눠주는 예산이 비슷하다"며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은 1차 연도 시범사업을 위해 2021년 추경으로 44억원, 작년 본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

혔다.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된 1차 연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용역 중간보고 결과, 참여자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몸무게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함에도 서울의료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등 서울시립병원의 인력 정원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에 주문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는 "시립병원 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현실화를 추진하고 과다한 업무 부담을 덜 것"이라며 "국내외 학회 등 교육·훈련으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립병원의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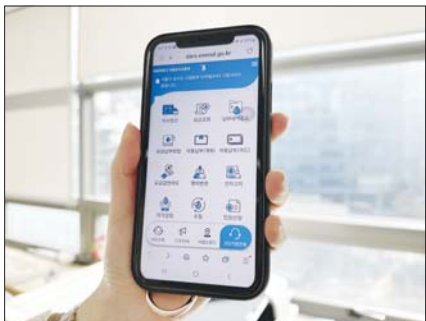
“수돗물 민원 ‘디지털 ARS’로 해결하세요”

서울시, 모바일 전용 서비스 시작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른 처리 가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수돗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ARS(자동응답시스템)'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ARS는 상담원 전화연결이나 음성안내를 들으며 기다릴 필요 없이, 고객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원하는 업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다. 365일 24시간 상담 시간에 제약이 없다.

본부 관계자는 “서울시 상수도 민원



디지털 ARS 이용 모습.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은 인터넷 사이버 고객센터(홈페이지), 카카오톡 채팅 로봇(챗봇) '아리수톡', 모바일 아리수(어플리케이션), 전화상담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전화상담

을 통해 신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며 "서울의 경우 상수도 전화 민원은 연평균 121만건에 달하는데 이사 철에는 수도요금 이사 정산을 하기 위한 전화가 몰려 오랜 시간 전화 연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디지털 ARS를 통해 빠른 상수도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폰으로 관할 수도사업소 대표번호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숫자판(키패드)에서 1번을 선택하면 디지털 ARS로 연결된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이용이 편리하다고 본부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만든다

3대 핵심과제로 선정, 세부계획 마련
도심숲 조성·친환경에너지 확대 등

고양시는 올해 저탄소 녹색도시 이행, 시민 환경기본권, 시민중심 환경안전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23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고양시는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도심숲·친환경 에너지 확대, 시민중심의 환경 안전 구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고양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계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도 운영한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중립 중기 목표를 설정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 오염물질 배출차단, 도로 살수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 쾌적하고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기능숲 10개소, 공원 도시숲 6개소 등 포켓숲을 조성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1년치 자동차세 한번에 내면 7% 세액공제”

1월까지 납부 시 세액공제 혜택
이택스 홈페이지·앱에서 신청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은 1년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6월과 12월에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연 세액을 1월에 한번에 미리 낼 수 있다. 납

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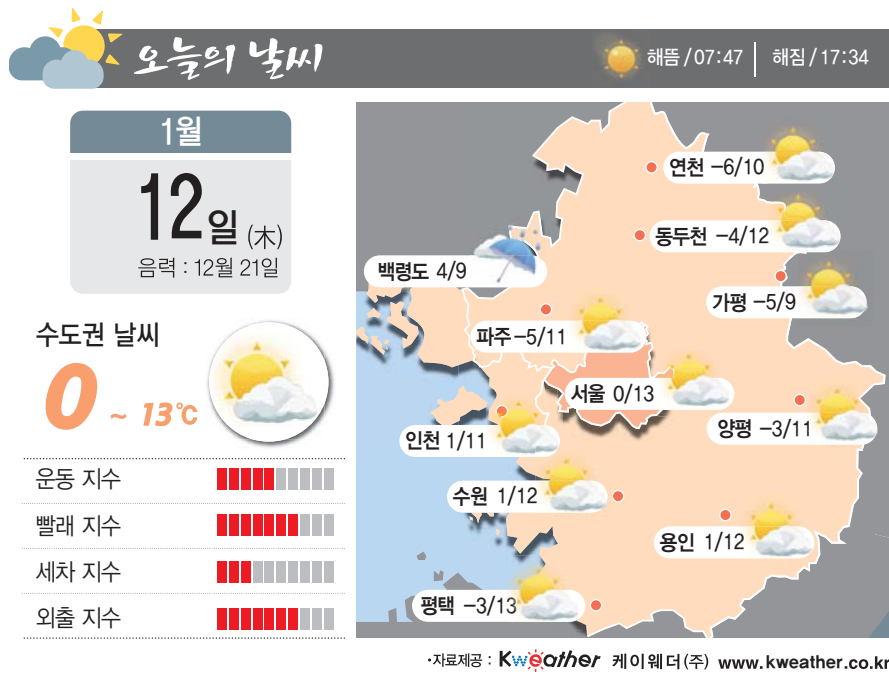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다.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형 틈새 돌봄 3종 서비스 시행

서울시는 올 1월부터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3종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3종을 부모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코인베이스, FTX 붕괴 여파로 직원 950명 해고 단행
▲영 해리왕자, “자서전서 탈레반 사살 자랑했다는 건 ‘위험한 거짓말’” /사진 뉴시스

▲일자동차 3사, 작년 중국실적 ‘마이너스’...도요타는 10년만에 감소
▲“한국정부, 한일 양측 기업 기부받아 배상 대신 갚는 방안 조율” /연론



▲러시아, 지난해 590조원 적자...옛소련시대 이후 두 번째 규모
▲국경 맞댄 미·멕시코·캐나다, 5년 만에 북미 3국 정상회담 개최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SK telecom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3 Happy New O day



1월의 O day

10일, 20일, 30일마다 찾아오는 O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피자 반값 할인 쿠폰

다운로드한 날 포함 5일

배달 주문 쿠폰 또는 포장 주문 쿠폰 중 택 1
도미노피자 온라인(홈페이지/앱)에서 배달/포장 주문 시에만 가능



치킨 반값 쿠폰 (8,500원)

다운로드한 날 포함 7일

멕시코나 앱에서 배달/포장 주문 시에만 가능
치킨 상품 포함 17,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 일부 매장 행사 제외



뮤지컬 <캣츠> 오리지널 내한 공연

100명 무료 초청

50명 추정

R석 티켓 2장 (2023년 2월 18일(토) 오후 2시 / 오후 7시 중 택 1)
다른 O day 혜택을 이용해도 응모 가능



5천 원권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선착순 5천 명 제공
금액권 사용 제외 매장 확인 후 다운로드



5천 원 촬영권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선착순 5천 명 제공
촬영권 사용 제외 매장 확인 후 다운로드



얼그레이밀리티(R)

1잔 무료 교환권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선착순 1만 명 제공
전 매장 사용 가능

● O day는 매달 01이 들어간 날짜인 10일, 20일, 30일에 1회씩, 총 3회 제휴사 혜택을 각 1회씩 이용하실 수 있는 T 멤버십 혜택입니다. ● O day 혜택은 만 13~34세, T 멤버십 VIP/GOLD/SILVER 고객님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O day 혜택은 2022년 12월 1일(목)부터 2023년 12월 31일(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O day 혜택은 매달 10일, 20일, 30일 09시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각 날짜에 이용하실 수 없는 혜택은 다른 날로 넘길 수 없습니다. ● 같은 제휴사 혜택을 중복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시: 10일에 A 제휴사 혜택을 이용한 경우, 20일에는 A 제휴사 혜택을 이용하실 수 없음) ● O day 혜택은 T day 혜택과 중복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O day 혜택은 VIP Pick 혜택과 중복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O day 혜택은 매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혜택은 선착순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쿠폰을 다운로드한 다음에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 다운로드하신 쿠폰은 T 멤버십 앱 > 전체 메뉴 > MY > 혜택 쿠폰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혜택 별 유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